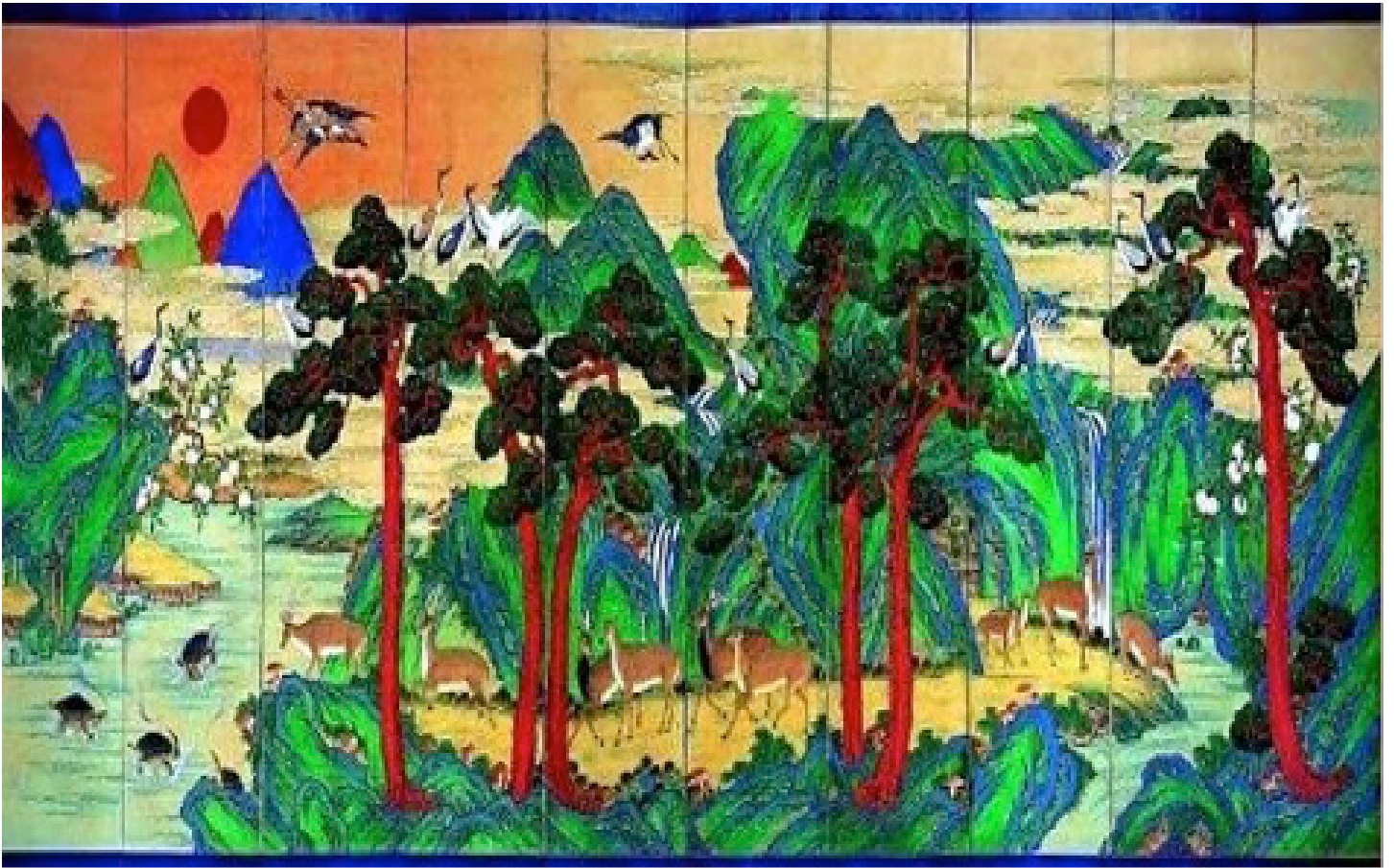


세종



십장생 10폭 대병풍(19세기,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2015년 문집 29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노



력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이 어 한 -

리 를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러 향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쉰 간 - 에 자 랑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 친구클럽:** 세종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친구클럽은 입양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주에 한번씩 도서관에서 만나, Korean-American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어,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한 달에 한번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평생 친구로서 서로에 대해 의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미 있는 클럽이다.
- 모금파티:** 1978년 4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 모든 후원회비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마다모금 파티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인학교 협의회와 전미한인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며 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태극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주년 특집호가발간되었다.
-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 중,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4년 세종학교 개학식



교장 선생님 인사말

세종학교 교장 김선미



지난 2014-2015학년도를 결산하는 세종문집이 나오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고사리 손으로 그려넣은 유아반 학생들의 작품부터 수려한 글솜씨를 뽐내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작품까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모습을 그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실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애쓰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 기쁩니다.

세종학교가 어떤 학교일 까 잠깐 생각하니 선생님들께서 휴식시간에 나누시던 대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애정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당신 반 학생들의 성실함과 예의바름에 대한 칭찬과 이어지는 칭찬들...저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의 모습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세종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세종학교로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텐데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세종학교의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복도를 가득 메우고 조잘 조잘 친구들과 얘기하는 세종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종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쁩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복도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해주는 학부모님들! 또 맛있는 스넥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설레게 하시는 학부모님들!

훌륭한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세종학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한 세종학교 학생들의 배움의 결실인 문집에 큰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학교의 미래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교장 김선미

이사장님의 격려서

세종학교 이사장 김창휘



지난 1972년에 개교한 이래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세종학교의 학생들이 올해도 일년을 결산하는 문집을 발간하니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겠다는 봉사의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준비하셔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이 모범이 되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니 그곳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으로 한 해 한 해 더욱 더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 힘들텐데도 열심히 세종학교에 와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세종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종학교에 와 공부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물론 지역의 한인들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은 물론이고 이보다 더 큰 감사를 세종학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어도 그 학교를 채워 줄 학생들을 데려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없다면 세종학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을 이뤄나갈 세종학교의 가족 여러분,

이제 2014-2015학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15-2016학년도를 계획하면서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다함께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하유경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오대호의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때입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했던 만큼 따뜻한 바람과 햇살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지요. 어려움 없이는 성취도 없고, 당연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글학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꾸준한 학습의 결실로 문집을 선보이게 된 학생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치 않은 여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학교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디트로이트 세종 공동체가 지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학부모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국 역사 및 문화교육을 위해서도 창의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세종 역사문화 캠프를 실시하여 스스로 주제를 찾아 탐구하고 체험하며 역사를 익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체득한 지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4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문집을 발간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좋은 글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우리는 좋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활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은 시간과 더불어서 흩어져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면서 글로서 이를 엮어내는 작업을 통하여, 찰나의 경험과 시간은 영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다 단단하고 명료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글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과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들의 글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글들이, 그것도 이 미국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한글로 쓰여져 문집으로 엮여 나온 것은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로 이루어진 이 문집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글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문집발간을 축하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하 유 경
2015. 3.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황규천



존경하는 김선미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좀처럼 물러설 것 같지 않던 매서운 추위가 봄기운에 밀린 듯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서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크게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짓 하듯 여러분도 다시금 힘차게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새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한 제 35대 디트로이트 한인회의 회장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뒤늦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매년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담은 세종문집에 인사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시간에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종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교는 어린이들부터 중고생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2세, 3세 들에게 한국의 말과 글은 물론 전통과 문화를 익히게 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종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매주 주말마다 자녀들을 세종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학교 수업 외에도 한글을 익히고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께도 찬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 때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만행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우리의 풍습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우리의 말과 글을 마음놓고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한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비록 당장은 한국말과 글에 서툴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익히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앞으로 미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역으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은 물론 문화와 역사 및 전통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 덕분에 세종학교가 미주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한국학교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세종학교의 발전을 위해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종학교 이사회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을미년 춘분 시절에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황규천 드림

학부모 회장 이재선



세종학교의 2014년 가을학기가 시작하나 싶더니 벌써 한 해가 가고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세종학교 학부모 회장이라는 책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종학교 학부모 임원회 여러분들, 각 학년의 룬맘으로 수고해주신 어머니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간식 봉사에 기꺼이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세종학교가 지금과 같이 이어나갈수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세종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세종학교에 부어 주신 김선미 교장 선생님,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힘들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토요일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수고와 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울수 있도록 하여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잊혀 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세종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학교가 앞으로도 2세 모국어 교육에 앞장 서서 많은 2세들이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사진



교장 김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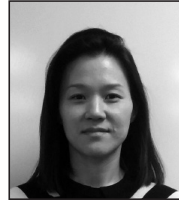
교감 엄선규



토끼반 하승희



나비반 송국향



개나리반 한혜진



매화반 홍지애



난초반 원운경



무궁화반 노정환



장미반 윤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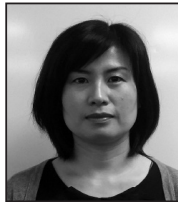
해반 한은영



솔반 이계현



달반 문혜인



별반 박지영



하늘반 이지은



색동반 박현우



종달새반 이지인



공예 최희재



사물놀이 엄지현



음악 김혜준



무용 윤경운

목차

토끼반	12
나비반	17
개나리반	21
래학반	26
난초반	32
무궁화반	35
장미반	39
해반	44
솔반	48
달반	51
별반	60
하늘반	66
신입생반/색동반/종달새반	72
졸업생의 글	75
자원봉사 학생의 글	77
이야기 대회 및 골든벨	78
동요부르기 대회	79
글짓기 대회	80
특별활동 및 행사	81
친구클럽	83
역사문화캠프	84

토끼반

담임 하승희

토요일 아침이면 올망졸망 토끼반 아이들이 세종학교에 모여듭니다. 학기 초에는 낯선 곳, 사람들을 보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끼리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애국가랑 세종학교 교가도 힘차게 부르며, 세종학교에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국 학교에선 영어를 썼지만, 이곳 세종학교에선 한글로 노래하고, 책을 읽고, 한글로 글씨를 씁니다. 토끼반은 13명, 만4세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는 서경이, 배운 단어들을 모두 다 읽어내는 야무진 태희, 숙제를 너무 사랑하여 한 주도 빠짐없이 해왔던 예원이, 노래에 흥을 담아 부르는 병현이, 남자 아이들과 파워레인저 놀이에 빠져있는 민현이, 태어난지 한 달 된 동생 현선이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쳐 준다며 더 열심히 공부하는 현준이, 축구 한 게임을 이미 뛰고, 세종학교에 달려오는 부지런한 리키,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한글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수지, 꼼꼼히 과제를 해내느라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는 세이, 항상 점심 시간에 두 그릇씩 먹는 건강한 민서, 봄학기에 새로 들어와서 낯선 환경임에도 한번도 울지 않았던 지원이, 몇개월만에 처음으로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 선생님을 감동시킨 성원이, 수줍음이 많아 눈물을 많이 보였지만, 이젠 과제를 척척 해내는 나경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도 또한 세종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치며 성장했음을 새삼 느낍니다.



그림 일기

날짜 : 1월 5일 월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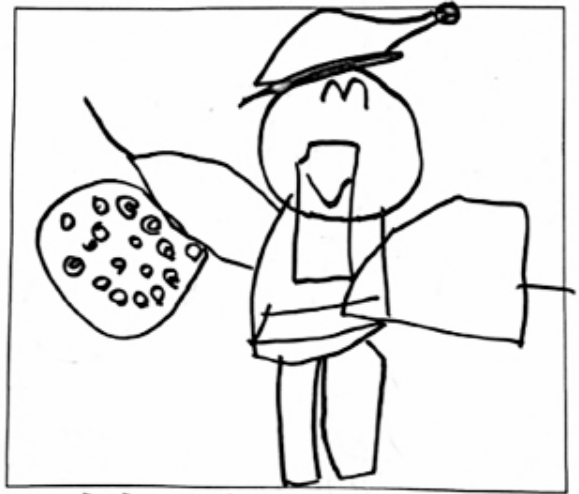
토끼반 이름 : 김 나 경

그림 일기

날짜 : 12월 25일 목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 김 어 린

그림 일기

날짜 : 월 일 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 김 서 경
A



그림 일기

날짜 : 1월 17일 토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 김태희



그림 일기

날짜 : 1월 21일 목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 오수지

그림 일기

날짜 : 2월 7일 토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 조준
노준

그림 일기

날짜: 1월 1일 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조병현

그림 일기

날짜: 1월 11일 수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김민서



그림 일기

날짜: 1월 28일 수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이아진

그림일기

날짜: 월 일 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정근세

그림일기

날짜: 월 일 요일

***방법**

- 겨울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 그림을 그리고 말해보기



토끼반 이름: 조만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정세이



아빠랑 눈사람 만들기
재미있어요. 눈썰매도
만들어 주셨어요.

나비반

담임 송국향

“선생님, 집에 언제가요?” , “선생님, 스넥 언제 먹어요?” , “선생님, 엄마 보고 싶어요.” ,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 “선생님 물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이번주도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봐달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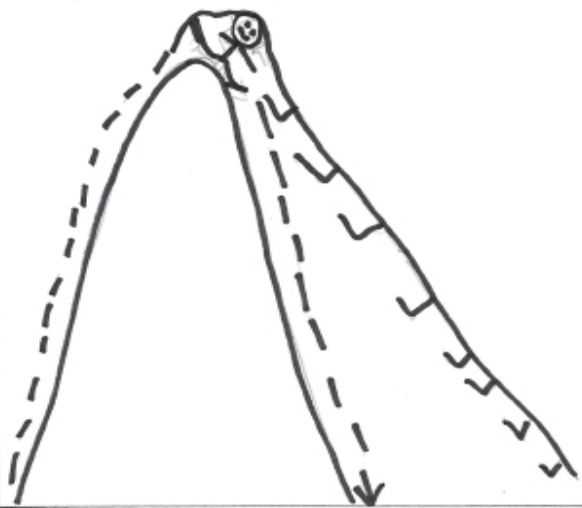
정신없이 수업을 하면서도 아직 어린 아이인데 추운 겨울, 눈 오는 아침, 늦잠 자고 싶은 토요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에 와서 교실에 앉아있다는게 신기하고 기특할 뿐입니다.

첫 날부터 선생님을 꼭 안아 주고 집에 가던 애교많은 우리 진아.
성실하고 책임감있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려는 모범생 우리 연서.
한국말이 낫설어 힘들었을 우리 혜민이. (마지막까지 웃으며 끝까지 공부해줘서 고마워.)
장난기 많은 얼굴로 웃으면 눈이 보이지 않아 너무 너무 귀여웠던 우리 용준이.
잠시를 가만있지 않지만 한글을 모두 알고 있는 똑똑한 우리 시원이.
나비반 팻말들고 항상 앞에 가며, 내 손을 가만히 잡던 우리 이안이.
뽕뽕하고 멋진 얼굴에, 운동화 끈 묶어 달라며 내 무릎에 발을 척! 올리던 아기 같은 우리 남경이.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사랑을 표현하며, 양보할 줄 아는 신사다운 우리 하원이.
궁금한 것 많고, 알고 싶은 것 많아 항상 선생님에게 질문하여 나를 긴장시켰던 우리 기윤이.
언제나 인사 먼저하고, 어른들께 높임말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멋진 건희.
마지막으로, 2학기에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우리에게 늘 나비반 예쁜 학생으로 남아있는 우리 예나.

아이들이 커 가듯 나비반도 이렇게 일년을 커 온 듯 합니다. 아름다운 미시간의 여름이 오면 우리 나비반과 아름다운 헤어짐을 해야 하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년동안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나비반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키는 너무 재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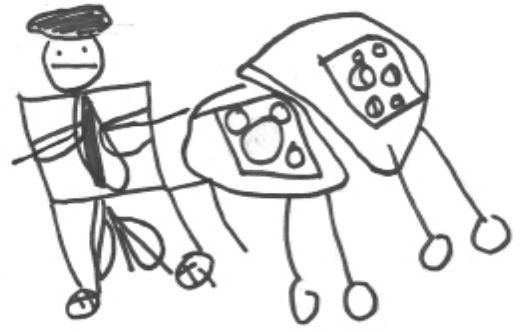
엄마, 아빠, 민서, 전희가
캠핑 갔어요.
비가 내려요, 번개가
와요. 캠핑이 좋아요.



어제 책을 쓰는게
재미였다



가족들과 함께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는 세종 학교에서
간식 시간이 가장
재미있어요.



나는 친구 진아와
규연이 오빠랑 눈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는 연서와 규연이
오빠와 함께
눈밭에서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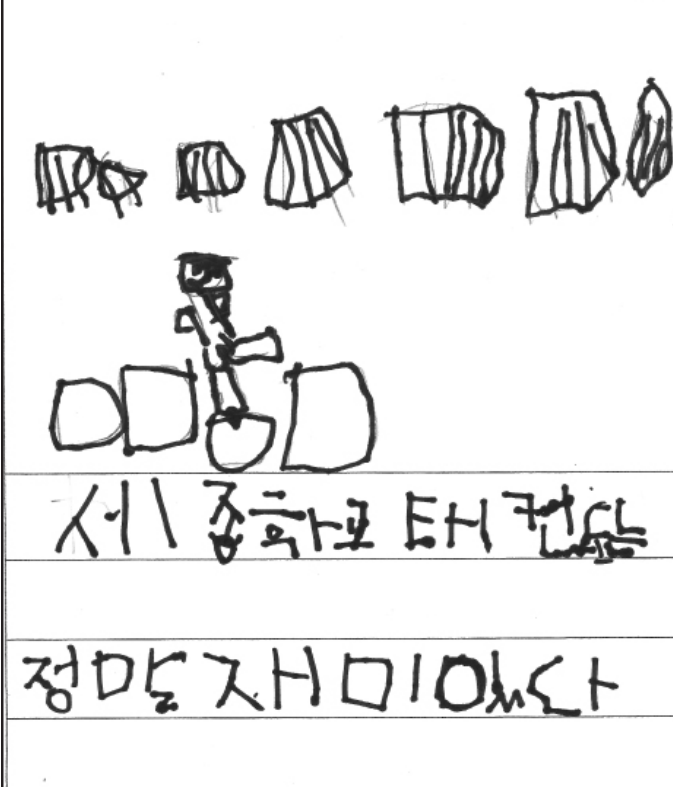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레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나비 반 이름 이시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나비 반 이름 권이경



개나리반

담임 한혜진

어느덧 다시 문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늘 그렇듯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좀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텐데, 좀 더
신경써서 봐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은 개나리반 생활에 활력소가
되겠지요?

개나리반을 꾸려가며 느끼는 점은 학부모님의 열의와 정성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 피곤하실 텐데도 사랑으로 먼 거리를 오가시며 열심히
출석하게 도와주시고, 매주 꼼꼼히 숙제 챙겨 보내주시고, 잊지 않고 단어 테스트
확인해 주시는 점들... 아이들의 폴더를 확인하며 제가 매주 놀랐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개나리반 기간 동안도 열심히 몸과 마음으로 자라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김정화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저는 친구랑 공원을
놀이터에서 손래잡기
하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찬이.

저는 야구를 할거예요.
오래하면 팔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상도 받아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김세진

저는 봄이 되면 아바와 축구
놀고 싶어요.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축구 게임을 하고 싶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좋아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김도희

따뜻한 봄이 되면 친구들과
생생 롤러스케이트를 신나게
타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김소진

봄이 되면 밖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윤수은

봄에, 나는 밖에서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이예진

나는 스키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스키 장을 자주 가요. 피아노도 좋아해요. 토요일에 피아노 강대 외워서 연주 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이승주



봄이 되면 저는 꽃밭에가서
꽃들을 갖고 예쁜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싶어요.
또 나무잎을 갖고 요정의 집을 만들고 싶어요.
또 소풍을 하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이준현



나는 여름 이 캠핑을 갔어요
아빠, 엄마, 형 동생들과
함께 텐트에서 잠도 자고
말시말로우도 구워 먹었어요
캠핑도 가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심이안




저는 봄에 비가오면 비를
맛으며 비물 속에서 놀고 싶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름 정은찬



나는 봄이 되면 농구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덕후하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겨나래반 이름 김지윤



봄이 되면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고싶다. 왜냐하면
봄바람이 나의 얼굴에 느껴져서
좋을것 같다. 바람이 봄이 왔으면
좋겠다.



매화반

담임 홍지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씩씩하고 활발한 새로운 매화반 학생들을 만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종문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해마다 교사의 글을 적으려고 하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릅니다.

사실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주말엔 느긋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텐데도, 토요일 아침 세종학교로 모여드는 학생들을 볼때면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졸린 눈을 부비며 온 학생들에게도, 또 열심으로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요.

많은 학생수 만큼이나 개성 강한 학생들이 모여있었던 매화반 학생들. 강솔대해, 김래오, 김민성, 김선규, 김예원, 김찬영, 노현솔, 박제인, 배정혁, 신서인, 윤지환, 이상엽, 차유림, 최연주, 최유진, 한준혁. 모두모두 수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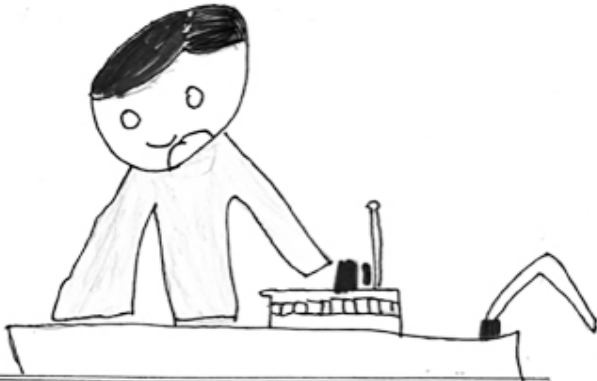
다문화이웃 사랑학교 반이름: 김민성



atack

나는 Clash of Clans 좋아해요
 마녀머신업잉 간 놀아봐
 gold 용서와 대 cattle 만들래며
 그다음 army 를 논 런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랑라 싸우고
 다그 사랑 랑 러어 자애
 그다음사 매대 gold 가즈어서
 누라운 마녀작아 해거야.

다문화이웃 사랑학교 반이름: 강소대해




나는 크리스마스 아 집에서
 놀았어요 레고를 가졌어요 재미
 키 만들었어요

25.12.2014 강소대해

Joyce 김예원

다문화이웃 사랑학교 반이름: 매화반



저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와 동생들과
 쿠키도 만들고 흙두가기 인형도
 만들었어요. 재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름: 배정희

저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로봇 선물을 받았습다. 아빠와 로봇 친구만들었어요.

이름: 조준혁

뽕스기빙날 할머니 집에 갔어요. 우리는 칠면조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머시포터와 그레이브도 먹었어요. 뽕스기빙이 많았어요. 나는 할머니 집에서 토요일까지 보냈어요.

이름: 이상엽

성탄절 연휴에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놀러갔어요. Brent 할아버지와 Betty 할머니 집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강아지 새와 많이 놀았어요.

이름: 윤지환

우리는 시카고에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공동도 보았습다. 또 tiny boat 영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질방에 가서 재밌게 놀았습다.

이름: 김래오

오늘 YMCA에서 농구시합을 했어요. 내가 세 번 골을 넣었어요. 우리팀이 더 잘 해서 이겼어요. 우리팀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농구가 참 좋아요.

다들 좋아하는 세상학교

이름: 최연주

나는 겨울 방학에 플로리다에 다녀와습니다. Seaworld에서 돌고래도보고수영장에서수영을 했습니다.또플로리다에가고싶어요.

다들 좋아하는 세상학교


이름: 김찬영

나는 Minecraft을 좋아해요.만들수있어요. Steve 그리고 Alex 있어요.생존게임.구축장있어요.항적어는만들수있고.목숨을업시요.생존에서는수집을하야.다이아몬드.함수있어요.이름을바꿀수있어요.곡괭이를만들수있어요.곡괭이를로.금.다이아몬드.금.수집있어요.사우루.무기있어요.전투복.사출때.필수.금.다이아몬드.철.그리고.가죽.있으면.그러서.줘.아.요.

이름: 박제민

오늘 엄마하고 오빠랑 북페어 갔어요. 나는 북페어에서 포스터하고 책하고 다이어리를 샀어요. 오빠는 포스터하고 책을 샀어요. 나는 집에 와서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나는 책 두권을 샀어요. 오빠는 책 네권을 샀어요. 내 방에 처음으로 포스터가 걸렸어요.


차이점
다문화이민 세계학교 반이름: 년 월 일



저는 겨울 방학때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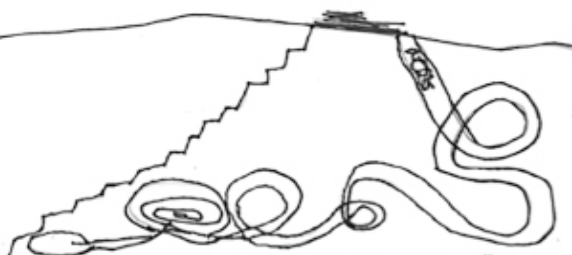


이름: 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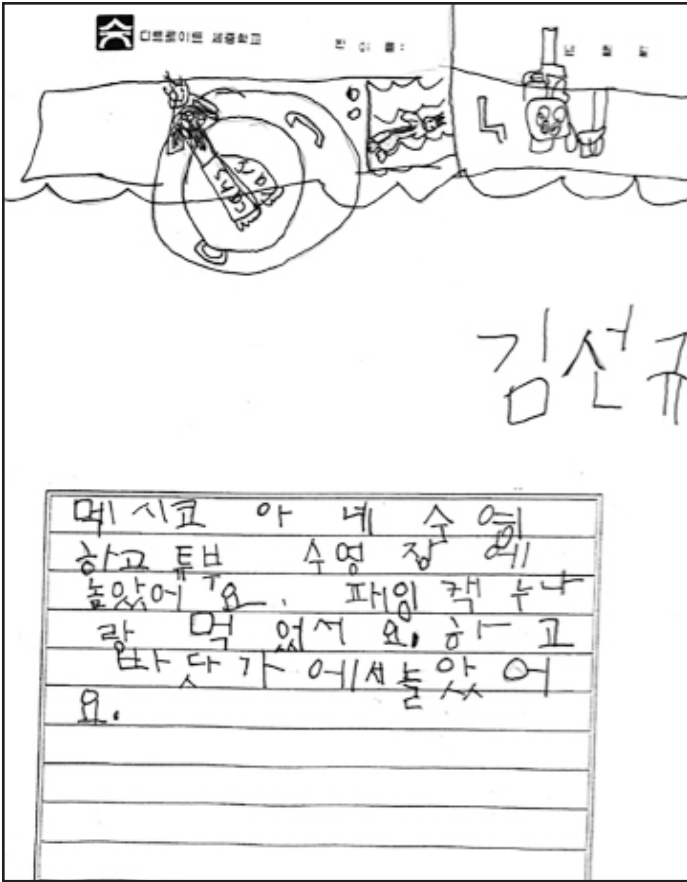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에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다리를 마사지 해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어서 다시 건강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이민 세계학교 노현솔 이름: Hyunsol / 년 월 일



저는 pret Wolf Lodge 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버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남친 구드도 만났어요. 그리고 Christmas present 다시 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도 다들 미갔어요.



난초반

담임 원운경

세종한국학교라는 배움의 숲에서 작은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아이들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째 아이가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저도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한국학교에 교사로, 그리고 부모로 다니면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왔음을 깨닫습니다.

4년 전에 이곳에 이사왔을 때 엄마가 교사여서 12년을 학교에 다녔으니 새로운 학교에는 이젠 더 이상 안 가겠다던 작은 아이가 세종학교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수업 뿐만 아니라 서클 활동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세종학교에 오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종이란 이 배움의 숲은 아이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라는 자양분을 골고루 공급 받으며 든든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소중한 아이들을 만났고 교사로서도 새롭고 보람된 일들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에게도 정말 행복한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미국에서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며 커가는 아이들을 보시며 힘드시지만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보내신 보람을 반드시 느끼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난초반은 작은 규모의 반이었지만 그래서 더 아이들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었고 어찌나 사랑스러 운지 모르겠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저를 쳐다봐 주고, 스피지 같이 배운 것을 습득하며 또한 즐겁게 앞다투어 재잘거리는 모습은 마치 저에게 세종학교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윤아, 민아, 은서, 승준, 세희, 끌로이, 그리고 영민이가 세종의 숲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커 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빌어 항상 교사인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시며 도움을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께 ♡

안녕하세요 저는잡지너요 사랑해요
보고싶어요. 저는요즘 스페인어와 수학,
그리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컴퓨터 잘배우고 계세요? 전 일곱살이
되어요 건강하세요

2015년 3월 21일
세희 올림



세희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엄마를 진짜 사랑해요.
엄마가 늘학교에서도 보고싶어요.
그리고 딸똥이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엄마 하고 한국말 공부하는게
재미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5년 3월 4일
클로이 올림



클로이에게,

어네이 자지나어, 여키미가오 재미어 영키어아 가 바? 신디는
반할때 우리 같이 뽀잇겨든, 마할래?
나 포켓몬 잇겨든 뭐 가져 오까? 체리포켓몬의 포켓몬, 아니면
계란 포켓몬? 너가 우리 집에 오븐, 요리 집어 크니 슬박공정 하
놓자. 그럼 안녕

너희 사랑하는 친구,
민아가



무기에게

안녕 잘지내? 여름방학에
미국에 놀러올거야? 놀러오면
같이 레인포레스트에 가자.
그리고 공원에 가서 공놀이도
하자. 보고싶다 친구야. 꼭 놀러
오길기도 함께. 건강히 잘지내.

승준이가

03-21-2015



윤아에게

안녕윤아야. 한국어 잘있나? 네가 한국으로
가서 나는 네가 보고싶어. 다시 미국 오수있나?
네와 카이스타임 은우 이야기 해도 좋고, 우리 짝
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녕!

3월21일

윤아가



합대4기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이있으세요? 저는 미국에서 잠깐내고있어요.
한국학원에서 공부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이 공부 해서무슨일이오 엄마,아빠
께 칭찬받고싶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2015년 2월 21일

배은서 올림



무궁화반

담임 노정환

지난 9월 새로운 얼굴들을 맞을 기대감으로 다소 흥분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봅니다.

점점씩 처음의 낯선 모습들에 익숙해지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며 웃음 지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이는 친구들,

못 알아 듣는 척 판짓을 하는 친구들,

3초씩이나 선생님께 집중해 주는 친구들...

이 모든 모습들이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여린 이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쩔땐 따뜻한 햇볕으로, 어쩔 땐 단비로,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그렇게 도와 주고 싶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의 무궁화반 친구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무궁화반 친구들 사랑합니다. “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되면

강솔푸른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되면 숙제를 안 줄 거예요. 시험도 안 줄 거예요. 재미있는 책도 읽어 줄 거예요.

폭신폭신표도 교실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고 싶어요. 2학년을 가르치고 싶어요. 2학년은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컴퓨터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된다면 아름다운상 김다영

내가 만약 컴퓨터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쁜 그림들과 음악도 올려 놓을 거예요. 스포트 웹사이트는 스포츠에 대한 그림, 게임은 게임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디자인 할 거예요. 저는 인터넷 세상을 예쁘고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올려 놓은 그림과 음악을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디자인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웹사이트들도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웹사이트와 디자인 한 웹사이트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컴퓨터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요정이 되면

김민주

내가 만약에 요정이 되면 내게 날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정이 되면 마법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마법 가루를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쁘고 착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친구들과 다 살 거예요.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살 거예요. 제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정이 되면 그것들을 다 할 거예요.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김서연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4학년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착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줄 거예요. ‘교실 가게’를 만들고 가짜 돈을 만들어서 물건을 사도록 할 거예요. 파티를 많이 하고 학교를 일찍 끝낼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할 거예요.

내가 만약 고양이라면

예쁜상 김주하

내가 만약 고양이라면 깜깜한 밤에 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나를 안 잡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으니까요. 부엌에 가서 맛있는거를 먹을 거예요. 왜냐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요. 고양이들은 옷을 안 입어도 창피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거예요. 미끄럼틀도 타고 음식도 가져 가서 먹을 거예요. 놀이터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고 음식은 봉지에 담아 입에 물고 갈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 고양이 인생이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물이 된다면

문예진

저는 동물이 된다면 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날 수 있으니까요. 날 수 있으면 한국에 갈 거예요. 한국을 가면 삼촌네 집에 갈 거예요. 사촌이니까... 그 다음에 이모네 집을 갈 거예요. 이모 아들을 볼 거예요. 이모 아들은 지오 예요. 두살 이에요. 그 다음 할머니 집을 갈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는 밥을 먹을 거예요. 할머니 음식은 맛있어요.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박은준

은준이는 의사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도와 주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약을 줄래요. 그리고 암을 낮게 하고 싶어요. 아파서 죽으면 가족을 못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고양이가 된다면

오윤아

내가 만약 고양이가 된다면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없을 거예요. 한편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안으로 가면 내가 거의 죽을 거예요. (수영하기 싫어요.) 내가 편한 침대도 가져서 좋아요. 내가 귀여운 쥐 장난감도 가져요. 그런데 잘 때 소리가 있으면 싫어요. 내가 고양이가 되면 진짜 귀여워요.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 고양이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내가 만약 수의사가 된다면

무궁화상 유진

내가 만약 수의사가 될수가 있다면, 먼저 쉼터를 돌아다니면서 아픈 동물들을 고쳐 주고 싶어요.

수명이 짧은 동물들한테 좋은 비타민을 나눠 줄거예요.

지난 가을에 뉴욕을 방문했는데 아프고, 춥고, 배가 고플 강아지랑 고양이가 길거리에 누워있었어요.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수의사라면 지하실을 예쁘게 꾸며서 주인이 없는 동물들을 키울거예요. 기린부터 지렁이까지 나는 다 좋아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는다고 들으면, 내가 울고 싶어요. 또, 내가 수의사가 될 수가 있으면, 쉼터에서 동물들이 잘 팔리게 동물들을 꾸미고 싶어요. 동물들이 행복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요.

만약 오리가 된다면

이소정

저는 오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날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오리가 되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빵도 받아 먹고 싶어요. 여름에 물에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갈수고 있어요.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갈거면 멕시코랑 도메니칸 공화국에 가고 싶어요. 오리들이 길게 산다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어떤 오리들은 10년만 살아요. 제가 만약 오리가 되면 10년만 살기 싫어요. 한 20년 더 살고 싶어요. 제가 만약 오리가 되면 노랑 색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맨날 배가 고프면 밖에 나가서 잡아 오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 오리가 되면 동물원에 있는 오리가 되기 싫어요. 왜냐면 못 날아요. 제 이유들은 왜 제가 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진영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학교를 일찍 끝나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숙제, 공부, 음악, 그림 그리기도 할수 있을거예요. 나는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할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대학에 가는 것을 도와줄거예요.

내가 만약 FBI가 된다면

정찬민

내가 만약 커서 FBI가 된다면 나쁜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대통령이 위협에 빠졌을 때 대통령을 도와 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당장 그 사람을 잡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약사가 된다면

최민혁

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약사가 되면 약을 만들고 싶어요.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아프게 살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동물이 된다면

고운상 한수혁

내가 만약 동물이 된다면, 나는 사자가 되고 싶어요. 사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사자는 튼튼하고 힘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어요. 어린 사자는 귀엽게 생겼어요. 내가 사자가 된다면 나는 좋아하는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사자는 숙제도 안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 풀밭에서 놀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자가 되고 싶어요.



장미반

담임 윤희란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을 처음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세종문집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의사 표현이 뛰어난 지민이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회원이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작문 실력이 뛰어난 해찬이는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받았고 역사 문화 올림피아드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독립심과 창의력이 강한 남혁이와 재현이는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고 세은이와 가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모든 학습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유진이는 항상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밝고 쾌활한 서균이와 준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희현이는 숙제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항상 선생님을 잘 도와주던 예준이가 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서 서운했지만 주어진 과제마다 최선을 다하는 나연이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장미반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우수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높아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빙고 게임이나 상황극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향상되었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장미상 정해찬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역사책과 재미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삼국지입니다. 주인공은 유비, 조조, 손권, 관우, 장비입니다. 삼국지는 유비, 조조, 손권이 중국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역사책입니다. 삼국지를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장수들의 지략과 용맹함입니다. 두가지를 다 가진 장수는 없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 중에서 관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관우는 끝까지 왕에게 충성하고 배신을 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관우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관우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도 관우처럼 의리를 지키고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들기

아름다운상 이지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만들기입니다. 나는 목걸이, 팔찌, 그리고 반지를 자주 만듭니다. 나는 만들기를 할 때 점토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만들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미술입니다. 그래서 나는 커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커서도 미술을 하면서 미술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하면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멋있고 예쁜 작품을 보면 만들고 싶어집니다. 만들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들기를 하려면 상상력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거의 매일 뭔가를 만듭니다. 만들기가 제일 좋은 점은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따라주는 만큼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름다운상 이희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어려서부터 김치를 많이 좋아했는데 특히 김치찌개를 더 좋아합니다. 김치찌개의 국물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돼지 고기를 많이 넣고 두부도 많이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드십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면 나는 정말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들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만 있으면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저는 월남국수도 많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토론도에 가면 월남국수를 꼭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남국수를 아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매운 소스를 좋아해서 월남국수에 꼭 뿌려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인지 짬뽕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선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삼선 짬뽕에는 새우, 오징어, 조개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와 월남국수와 짬뽕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고운상 김남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나는 3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축구가 발로 뛰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더워지고 땀이 납니다. 어떤 친구는 땀이 많이 난다고 놀리지만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나는 공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뽕’ 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선수에게서 공을 뺏아서 빨리 뛰어갈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면 내가 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 축구가 더 재미있고 친구들과 다른 편이 되어 시합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나는 축구를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그만큼 좋아합니다. 나는 Chelsea, Barcelona, Real Madrid 팀을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각 팀의 선수들은

Diego Costa, Messi, Ronaldo입니다. 이 선수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고 나보다 100배는 더 잘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예쁜상 배세은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보는 시간이 많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꺼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일 재미있게 보는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1권부터 7권까지의 시리즈에는 마법사 해리포터가 자신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특히 해리포터가 싸우는 장면들을 상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또 두꺼운 책을 끝내는 기쁨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리포터 영화도 보려고 합니다. 나의 상상과 얼마나 비슷할지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재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듯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동생 숙제를 도와주거나 엄마의 심부름을 해서 영화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트랜스포머”입니다. 그 영화 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자동차로 싸울 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뀔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나의 꿈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박예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고 잘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웃기는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께 카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종이로 장난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은준이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칭찬해주십니다. 집에서는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노래를 듣습니다. 나는 매일 유튜브로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정유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축구는 기술을 써야 합니다. 공을 멀리 차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화가 날 때 축구를 하면 힘과 체력이 더 좋아집니다.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팀웍이 더 좋아지고 운동가 정신을 배웁니다.

나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 취미로 변했습니다. 나는 7년동안 축구를 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니 재미있고 축구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학교와 같아서 배우고 연습을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축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신서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여동생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의 이름은 신서인입니다. 나는 서인이와 같이 게임을 할 때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인이는 전화기가 없지만 내가 전화기를 빌려줘서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인이는 내가 좋아하는 보드 게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보드게임은 “모노폴리”입니다.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 수학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인이는 내가 심심할 때 함께 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나는 모노폴리, 포켓몬, 배틀쉽 게임을 좋아합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날입니다. 서인이는 나와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서인이와 게임을 하면 재미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김나연

나는 책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 미스터리나 환타지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들은 그리스 신화를 다루거나 마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Percy Jackson 이 쓴 “Olympians” 라는 시리즈는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세 친구들이 괴물들을 찾아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리스 신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읽어도 항상 좋아하는 시리즈는 해리포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책들은 조금 로맨틱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책 속에 로맨스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이 좋은 책들을 왜 흥미를 느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는 이 책들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너무 좋은데 나는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을 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

박준수

내 취미는 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레고입니다. 나는 두 살 때부터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와 생일선물로 항상 레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동안 비행기, 배, 자동차, 기차, 경찰서, 소방서, 스타워즈 등 많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레고가 완성되면 다시 부셔서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르게 만들 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레고를 제일 잘 만듭니다. 나는 레고가 세 통이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레고랜드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레고랜드에서 롤러 코스터를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레고 잡지도 신청했는데 레고 잡지를 받는 날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이가희

저는 강아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아지와 재미있게 놀 수가 있거든요. 가끔은 개가 시끄럽게 짖기도 하고 때로는 짖지 않기도 해요. 강아지는 저를 웃게 만들어요. 저는 강아지를 갖고 싶은데 아빠는 별로 갖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저만 빼고 제 친구들은 모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개가 있으면 많은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오빠랑 제가 할 수 있어요. 개는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엄마와 제가 갖고 싶은 개는 캐불두들이라는 종류인데 푸들하고 키벨리어 잡종이에요. 캐불두들은 작고 털이 많아요. 캐불두들이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거예요. 왜냐하면 오빠와 제가 개랑 놀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게 될 거예요. 엄마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한희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Kitchen Princess” 입니다. “Kitchen Princess” 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지가 (Najika) 입니다. 나지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나지가는 학교에 갔습니다. 나지가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 Akane에게는 Eating Disorder가 있었습니다. Akane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나지가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Akane의 옛날 친구인 Sora가 나지가에게 Akane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할머니께서 만든 복숭아 파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Akane의 할머니는 복숭아 파이를 30분안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kane의 할머니는 5년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나지가가 복숭아 파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Akane이 맛있게 먹고 원래의 입맛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Kitchen Princess” 는 아주 재미있고 책에 나오는 그림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반산

담임 한은영

해마다 세종문집에 들어갈 글을 쓸 때면 드디어 미시건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고 서있는 순간은 항상 기분 좋은 흥분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우리 해반 친구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배울 준비가 되어있고,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이상적인 모습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반 친구들이 앞으로 더 바빠질 생활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세종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해상 이연우

안녕 연우야! 난 30년 전의 너야. 그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지금부터 30년 동안 12살의 내가 꿈꿔온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12살의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졌는지 궁금해. 12살의 나는 다른 6학년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 아직도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니?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첫곳은 남자 아이들이 괴롭히던 것과 이 편지 쓰기 숙제에 대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야유했던 것도 생각나니?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정말로 오래된 기억이겠구나.

이제 너에 대해서 듣고 싶어. 난 Harvard에 진학하기를 소망했는데 너는 Harvard를 졸업했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필명

Charlotte.R.Evely로 반짝이는 금색 커버를 가진 책을 출판했니? 나는 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를 바래. 너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구나. 지금처럼 아직도 컴퓨터에서 타자로 책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무슨 종류일까? 그리고 네가 쓴 책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 난 행복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해. 지금 친구들과 계속 만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가족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애들도 있는지.....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30년 후겠지? 나는 30년 후의 네가 12살의 나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30년 후의 네가 너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12살의 연우가 30년 후의 연우에게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아름다운상 이소현

30년 후의 소현아 안녕! 나는 30년 전의 너야. 잘 지내니?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오늘도 너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네가

아직도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 숙제는 더 늘고 매일 방과 후에 수영 팀 연습과 많은 것들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있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산더미야. 내가 되고 싶은 아주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나 패션 아이콘이 되었니? 지금 남편이나 아이들은 있니?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살아봐야 알 것들이잖아. 내가 이 편지를 끝내기 전에 네게 말해주고 싶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로 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줘. 네 자신은 하나 밖에 없고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야. 가족은 어디서나 아무 때나 너를 지지해 줄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겨. 이 두 개를 제발 기억해줘. 사랑해 소현아.

-너를 사랑하는 30년 전의 소현이가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

고운상 이상원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다가 숙제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들과 문자와 사진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영수증을 보면 전화요금보다 문자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똥똥해 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족, 친구 간에 대화가 없어집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성입니다. 약 중독같이 스마트폰도 중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용하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

예쁜상 이준근

저는 스마트폰이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날씨도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아침에 알람 소리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기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조그만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심할 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이 많아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시간이 날아가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잘 쓴다면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오윤서

안녕! 나는 너의 30년 전의 모습이야.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니? 기억한다면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겠네! 너의, 아니 내 엄마아빠는 잘 계시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내가 꼭 되고 싶은 꿈 가수가 되어있니? 내가 지금 보는 멋진 가수들 사이에 있는 것을 상상하니깐 너무 들뜨네! 그래도 꼭 가수가 되지 않아도 돼. 그냥 세상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윤아는 아무 일 없이 잘 있지? 지금의 윤아는 조금 부족한 데도 많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은 무슨 대학을 졸업했니? 엄마 아빠의 바람은 고려 아님 서울대학교래. 내 생각에는 서울 대학교는 들어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어차피 30년 후에 다 알 테니 나머지 질문은 내 머리 속에 있어야겠네. 아! 그리고 엄마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줘!

-너의 30년 전 모습 오윤서가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

김윤진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이유는 아주 많아요. 아이들은 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전화와 텍스트를 할 수 있어요. 또 운동이 끝났을 때나 라이드가 늦어지면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아이가 납치를 당하게 되면 바로 전화를 해야 할 거예요. 또 스마트폰은 친구들과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만약 친구나 가족이 먼 곳에 있다면 서로 전화와 텍스트를 하고 페이스 타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학교 숙제를 다 마친 후에 게임을 하며 놀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지만 찬성의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점들 때문에 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윤지윤

안녕 지윤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2014년 12월 13일에 살고 있는 11살의 어린 너야. 오늘은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쓸 거야. 내가 11살 때 꼭 되고 싶었던 직업은 선생님이었어. 지금은 이미 3학년 선생님이 되어있겠지? 학생들은 어때?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아니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 힘들겠지? 하지만 세상에서 안 어려운 직업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겠네. 우리 엄마아빠처럼 우리 아이들이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되길 바래. 제일 친한 친구처럼. 참! 3학년 아이들에게 곱하기는 가르쳤니? 왜냐하면 내가 11살에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곱하기였거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어린 지윤이가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심진희

진희에게,
 나는 너의 열두 살 자신이야. 너는 42살 이겠네? 와! 너는 나이가 조금 많네. 잘 지냈어? 어떻게 이 편지를 찾았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이 편지를 세종학교 글짓기 대회 때문에 쓰고 있어. 혹시 지금 내가 한국말을 잘 하고 있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졌니? 혹시 기억을 못 한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들은 유명한 가수, 배우나 모델이 되고 싶었어. 내가 아직도 나의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니? 그러면 내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니? 내 엄마아빠는 건강하고 잘 지내시니? 지금 너의 직업은 뭐야? 너는 요즘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니? 아직도 뜨개질과 독서를 좋아해?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정말 많아. 하지만 네가 답장을 할 수 없으니 이 편지가 끝이네. 잘 지내.

-30년 전의 심진희가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

정다운

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게임만 하면 없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납치가 됐다면 엄마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해요.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의 엄마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엄마에게 빨리 전화를 해야 해요. 레슨이 일찍 끝났을 때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엄마나 아빠가 운전할 하다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GPS를 켜면 엄마나 아빠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게임을 하겠지만, 또 학교에서 집중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최민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돈가스예요. 왜냐하면 돈가스는 맛있어요. 나는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돈가스를 잘 만들어

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돈가스를 못 만들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돈가스를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엄마가 만든 돈가스를 더 좋아해요. 세종학교에서는 돈가스를 안 만들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돈가스를 너무 먹고 싶어요. 나는 한국에서 돈가스를 먹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만든 돈가스를 더 좋아해요. 이것이 내가 돈가스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김수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입니다. 농구는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해서 좋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발만 움직여야 됩니다. 농구를 할 때는 뛰는 동안 발에 아무 것도 없어서 좋습니다. 농구를 할 때 조준을 잘 하면 점수 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운동은 가끔 땀 때 아래를 봐야 하고 공을 뺏길 수 있습니다. 농구는 나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은 골 근처에서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농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에서는 점수 내기가 쉽지 않지만 농구는 쉽습니다. 농구는 기술로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축구에서는 그냥 골만 넣으라고 합니다. 농구는 일대일로 수비를 합니다. 농구를 하면 점프를 많이 해서 키도 커집니다.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도 세집니다. 저는 농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솔반

담임 이기현

얼마전 솔반 학생들에게 ‘선생님께 7문장 이상으로 이메일 쓰기’란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인사만 해도 7문장을 채우니 그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한 학생은 ‘선생님, 숙제 적게 내주세요’란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간 이메일을 보내더군요. 7문장에 불과한 그 짧은 글에서 저는 그 아이의 개성과 생각 등 많은 게 읽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숙제를 싫어하고 내주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다른 점은 숙제를 통해 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년시절과 달리 자신의 생각이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그러다보니 부모나 어른들의 생각도 비판하기 시작하는 십대가 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솔반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말 안듣는 십대란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어찌 다뤄야 할까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업 시간 속에서만큼은 나도 이 아이들 속의 하나이고 같이 배워가는 거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좀더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7명이란 학생수는 적다고들 하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이들의 개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애들 각각의 얼굴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어떤 성격과 장점을 가졌는지 등이 떠오르면서 그저 웃음 짓게 됩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봤던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꿈을 키우며 잘 자라나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 여행기

솔상 문수진

제가 5학년 여름 방학에 엄마와 동생과 한국에 놀러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롯데월드와 보령 머드 축제에 간 것입니다.

롯데월드에 처음 가봤을 때, 제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는 많이 없었지만, 엄마와 동생과 함께 구경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삼바 공연입니다. 반짝거리는 비키니를 입고 깃털 모자를 쓴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며칠 후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머드축제에 갔습니다. 그 축제에 가서 머드 풀에서 뒹굴며 미끄러움도 타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 십대 축제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축제를 가봤어요. 미국에는 없는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머드는 부드럽고 따뜻해서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머드에서만 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바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의 바다는 정말 넓었지만, 바닷물에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짜고 눈도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잡했어요. 그렇지만 즐거웠어요. 다음에 다시 한국을 가게 되면 좀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특수 효과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상 김민주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가지만을 꼭 짚어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특수 효과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 음향 효과, 뮤지컬 무대를 위한 특수 시각 효과 그리고 정신과 환자나 아동들을 위한 음악 효과 등등입니다. 시각 및 청각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 효과를 디자인함으로써 사람을 치

료도 하고, 즐겁게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수 효과 디자이너’, 이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어린 작가의 꿈

고운상 임재영

꿈이란 무엇입니까? 목표, 미래 또는 동기 부여 일까요? 그렇습니다. 꿈이란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처음으로 꿈을 쫓던 사람은 나의 5학년 선생님이었습니다.

“글 잘 쓴다! 작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나의 꿈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읽고, 작가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가끔은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만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작가가 된다면 그건 돈과 유명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책을 쓰는 작가 말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꿈과 동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치 나 이전의 작가들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 연결 고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글 역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꿈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돈까스

예쁜상 이진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돈까스예요.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돈까스를 먹어요. 돈까스는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의 고기는 연한게 소스랑 같이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돈까스는 종류도 많아요. 돼지고기 돈까스, 쇠고기 돈까스, 닭 돈까스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돼지고기 돈까스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가끔씩 집에서 돈까스를 만들어 주세요. 엄마가 돈까스를 만드실 때 도와드릴

적이 있어요. 고기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 밀가루를 묻힌 다음, 계란물에 넣었다가 빵가루를 씌우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요.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면 기름에서 꺼내어 조금 식혔다가 돈까스 소스랑 같이 먹어요. 정말 맛이 있어요. 돈까스는 소스랑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소스가 없으면 맛이 별로예요. 돈까스는 나한테 가장 맛난 음식이에요.

한국 여행

조우리

나는 어렸을 때 엄마랑 한국에 가보았다.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엄청 신기했지만, 오래 타야 해서 힘들었다. 이모와 외삼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엄마와 나를 환영했고 고모도 나오셨다.

외할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다. 나를 처음 만난 외할머니께서 무척 반가워 하셨고 많이 예뻐해 주셨다. 외삼촌 형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었다. 마리오 게임도 가르쳐 주었다.

또 누나들과 택시를 타고 아쿠아리움에 가보았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니 자동차와 사람들 모두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엄마와 함께 내가 타보고 싶어하던 기차도 탔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몽실이와 재미있게 놀았다. 몽실이는 참 귀엽다. 또 누나가 내가 갖고 싶었던 DS를 사주어 너무 좋았다. 이모랑 외삼촌이 나를 귀엽다고 선물을 많이 사주셔서 정말 좋았다.

한국에 가면 재미있다. 다시 외삼촌 가족이 사는 서울에 가고 싶다. 그리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다. 다음에는 아빠랑 꼭 같이 가고 싶다.

높은 건물, 높은 꿈

사무엘 정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도 짓고 싶어요.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

는 163층 건물입니다. 높이는 2,717ft.이구요.

나는 건축가가 돼서 두바이 건물보다 더 넓고 높은 건물을 짓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김하늘

나는 국수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운 짬뽕을 좋아합니다. 국수와 국물 때문에 짬뽕이 맛있습니니다. 그런 한국 음식 맛을 좋아합니다.

매운 양념을 넣으면 음식 맛이 더 좋아져요. 국물 음식은 맵고 따뜻한 맛이 잘 조화되어 맛있는 음식으로 태어납니다. 그 음식을 떠 먹으면 국물이 목으로 내려가서 따뜻한 느낌이 몸 전체로 퍼져요. 이제 양념 차례예요. 양념 맛이 목으로 내려가서 폭발물 같은 맛이 전체로 확 전해져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짬뽕을 드세요. 짬뽕에는 양배추와 양파같은 채소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 새우, 오징어 홍합 등 영양이 있는 건더기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매운 맛을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 음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짬뽕이 나에게 제일 맛있습니니다. 짬뽕을 드셔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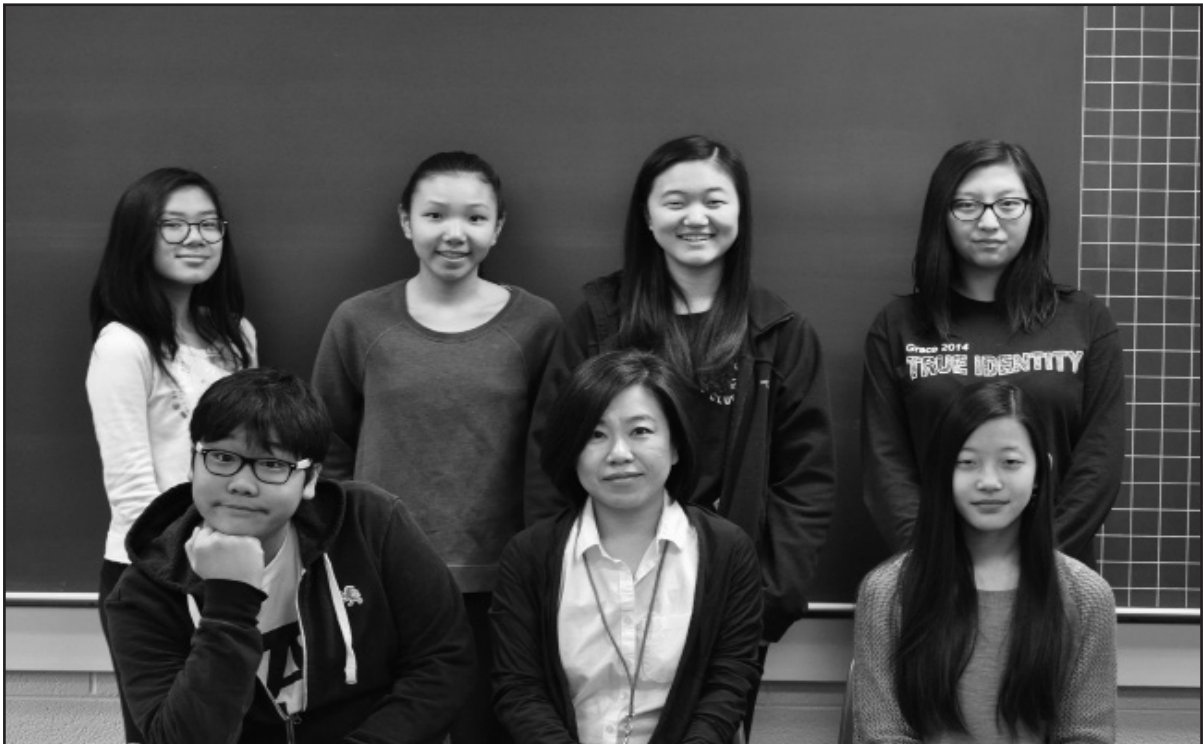


달반

담임 문혜인

아이들의 글을 정리하다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마다의 글이 저마다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살아 제게 다시 읽혀지기 때문이지요. 서툰고, 어색하고 때로는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문장들... 그러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글을 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롯이 기억나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착하고 아름다운 달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교사로서 참으로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학생들마다 실력과 경험의 폭이 다르고 학습의 정도 또한 달라 그들의 성과 또한 제각각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결코 무위에 그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가능케 주말마다 운전해 주신 부모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의 한국 학교 경험기

(시카고 교육원 주최 한글날 기념 에세이
대회 중고등부 은상)

김래아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남산타워와 경복궁에도 가보고 경주에 가서 불국사와 석굴암도 보았습니다. 유명한 곳에 가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학교에 3주 동안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교는 어떻게 다를지 무척 궁금했고 처음 가는 것이었기에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첫날, 저는 6학년 2반이었고,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많은 여자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안녕?”, “내가 학교 구경 시켜줄게.” “나랑 같이 놀래?” 하며 내가 마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친절해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학교와 한국 학교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로, 한국 학교는 점심 식사가 너무 잘 나옵니다. 매일매일 다른 밥, 국과 반찬들이 나오고 가끔 국수와 볶음밥도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왔고 3주 동안 매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에는 쉬는 시간이 미국 학교보다 많습니다. 미국 학교는 한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수업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한 시간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이 10분씩 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놀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미국보다 조금 짧지만 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미술, 체육, 음악 시간도 다 있고 특히 일주일에 한번씩 있는 미술 시간은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는 비누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천을 묶어서 염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것은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의 영어 발음을 듣고 싶어

해서 영어 시간마다 말하거나 영어책 읽기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모두 “와~” 하고 박수를 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름 방학이 가까워서 그런지 숙제도 미국보다 많이 없었고, 어느 날은 운동장에 모두 나가서 물총 싸움 놀이도 하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걸어서 문방구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미국 학교와 달라서 좀 이상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학교에서 여자 애들이 가끔 남자 애들에게 ‘바보’ 라고 하면서 때리고 놀릴 때가 있었는데 남자 애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누구를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되어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도 미국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 선생님들께도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한국 학생들은 참 예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수업을 한 교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이랑만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같은반 친구들과끼리 다 같이 놀 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방학식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3주 동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음 여름에도 또 놀러 오라고, 보고 싶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한국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이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다시 세종 학교를 다닐 때에 한국말과 글이 더욱 더 저에게 가깝게 느껴졌고, 한국어 수업도 더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만약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가도 한국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학교에 갔더라도 한국말을 몰랐으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어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리치기 위해 돌로 만든 동물들이 멋지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불 도깨비를 막기 위해 만든 드므라는 큰 물 단지도 신기했습니다.



한국 여행 기록

(시카고 교육원 주최 한글날 기념 에세이 대회 중고등부 동상)

정윤모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 중에 특히 좋아하는 곳은 서울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궁입니다. 서울 시내를 구경하다가 궁으로 들어가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에서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궁으로 이곳에서 있으면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왕들만 사용했다는 광화문의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니 넓은 뜰에서 수문장교대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을 지나 왕이 나랏일을 했었던 곳에 서니 조선 시대에 왕이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명한 건물들도 좋았지만 특히 나의 눈을 끌었던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의 단청들과 아미산 굴뚝 벽에 있는 덩굴,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새, 사슴 등의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벽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의 천장에 있는 금으로 만든 용들의 모습에서 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귀신을 물

조선시대 처음으로 에디슨 전기회사를 통해 전기가 들어왔던 건물에 있는 가로등도 보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곳과 조선의 마지막 왕비가 시해된 곳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살던 건물을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옮겨갔다 지진으로 없어져서 지금은 돌만 남아있는 집터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훌륭한 궁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은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궁은 덕수궁입니다. 경복궁이 조선시대 방법으로 지어진 궁이라면 덕수궁은 과거와 현대가 잘 섞여있는 특이한 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지어진 궁으로 마지막 왕인 고종이 살았던 곳입니다.

중화전은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앉았던 의자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의자 뒤에 있는 병풍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왕비를 상징하는 달과 왕을 상징하는 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왕이 쓰던 침대와 탁자 그리고 의자를 보면서 내가 상상했던 궁의 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가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2층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없어지고 다시 일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두 궁을 보면서 훌륭한 궁의 모습에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많이 망가져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침략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한글도 열심히 더 배우고 한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복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다음 번에 가면 더 훌륭한 궁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나의 꿈

달상 공서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공서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꿈을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저는 커서 오드리 헵번처럼 사랑스럽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드리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 배우가 되기 싫어요. 저는 나중에 오드리 헵번처럼 유니세프에서 기부하고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서 우리처럼 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드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보내주고 집도 지어주는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드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서 PRESIDENTAL MEDAL OF FREEDOM을 받았습시다.

그녀는 봉사활동 동안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굶주린 애들과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머리 위에 지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밥 한끼가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한 얼굴과 웃음을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녀가 말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서 그녀를 안아주고 손도 많이 잡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패션 감각도 너무 우아하고, 마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오드리 헵번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녀는 현재 사람들의 패션 아이콘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연기자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1993년 암이 걸려서 슬프게 돌아갔습니다. 유니세프의 뉴욕 본부에는 오드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최고의 배우로 남고 예쁜 마음이 있는 배우로서 남습니다. 저는 오드리처럼 커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서 봉사 활

동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드리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알려지고 싶어요.



청소년들 사이의 지나친 신조어나 말 줄임 현상 등에 관한 나의 생각

아름다운상 김래아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없으면 거의 하루도 못 견딜 정도로 그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를 서로 주고 받을 때, 빠르게 쓰기 위해 새로운 짧은 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사용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서 많이 씁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절약되고 쉽게 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어른들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젊은이들과 서로 대화 하기 어려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와 문법을 안 맞게 써서 한글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창의적인 말들이 많이 생겨서 언어 사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집중을 해야 하는 긴 문장을 읽을 때 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이메일 채팅을 많이 하면서 글 쓰기가 더욱 익숙해 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끔 폭력적이고 거친 말들이 많이 쓰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름답고 고은 말들을 많

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새로운 말들을 알려주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멋진 말들을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가족 여행기

고은상 정여진

디즈니월드는 마법과 신비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랑 디즈니월드에 갔습니다. 내 동생과 나는 엄청 신났어요. 나는 디즈니에 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나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었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서 가족한테 감사해요. 가족이 나에게 기회와 경험을 주었어요. 가족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디즈니월드에서 놀이기구를 많이 탔어요. 아빠랑 같이 HOLLYWOOD TOWER를 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재미있었어요. 다음으로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줄에 섰어요. 놀이기구를 너무 많이 타서 벌써 점심 시간이었어요. 가족이랑 음식을 빨리 먹고 놀이기구를 더 많이 탔어요.

밤에는 디즈니월드 불꽃놀이를 봤어요. 진짜 멋졌어요. 디즈니 등장 인물이 많이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에 텅커벨이 나와서 끝났어요. 가족이랑 디즈니월드 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가족이랑 여행을 즐겁게 갔다 오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꿈

예쁜상 유수민

나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나는 아픈 동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나는 집에 초코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아플 때 뭘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초코는 작년에 치킨 뼈를 삼킨

적도 있다. 치킨 뼈는 뱉죽하기 때문에 배를 찢어서 죽일 수도 있다.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해야 했다. 아플 때 도와줄 수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의사가 되어 도와주고 싶다.

더 익숙해지게 여름에 동물 피난처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잘 못할 거라고 걱정 되지만, 해야 배우니깐 일단 해봐야 한다. 동물들은 사람처럼 기계랑 약도 없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많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이유로 수의사가 되는 게 나의 꿈이다.

나의 꿈

김남호

나의 꿈은 작가/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것 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왔고 지금도 매일 책을 읽기 때문 이에요. 독서는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내가 더 똑똑해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요. 나는 또한 내 책의 그림들도 내가 그리고 싶어요. 나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 말해 줄 거예요. 나는 realistic fiction, fantasy, science fiction 책들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장르의 책들이기 때문이에요. <I am the messenger>, <The hunger games>, <malice/havoc>, <Percy Jackson>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모두 재미있으면서도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나는 나의 책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언젠가는 작가/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이유예요. 언젠가는 꼭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의 나에게

이준오

이준오, 10년 후에도 공부 잘 하지? 시험 잘 봤지?

좋은 친구 있지. 좋은 친구 없으면 안돼. 지구의 종말 시작했어? 누가 시작했어? 질병 때문이 맞지? 아니라면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시작되었어? 아직도 역사가 되고 싶어? 아니라 해도 괜찮아. 그런데 대학교 끝나면 뭐 하고 싶어? 책은 아직도 좋아? 게임 아직도 못하지.

옛 친구랑 아직도 놀아? 친구랑 안 놀면 공부 열심히 하지. 방학 때면 미시간 아직도 가지. 그런데 부모님은 미시간에 아직도 살고 계셔? 이사 했어? 형아랑 계속 얘기해? 계속 싫어?

돈 많이 없지. 대학교 비싸기 때문에. 행복해, 슬퍼? 한국말 잘해? 아직도 못해? 애니메이션 아직도 좋아? 음악 잘 돼, 안 돼? 운동하지. 키가 크지? 아직도 똥똥해, 날씬해졌어?

쓰는 거 좋아하지. 힘들지만 재미있지. 대학교는 멀리 가지. 어디 사는데? 햇빛 많이 있어? 10년 후에 보자.

나의 가족 여행기

원준희

이번 여름에 저희 가족은 삶에 큰 영향을 준 여행을 갔어요. 우리는 모두 바쁘고 서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고 엄마는 집안 일과 교회 일이 바빠요. 언니도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쁘게 재냈어요. 그런 정신 없는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년으로 여행을 가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은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Cirque du soleil 이류 서커스랑 미라지 호텔

의 화산쇼를 봤어요. 그 다음 우리는 그랜드캐년에 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국립 공원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잤지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는 것도 보고, 계곡 아래로 중간까지 걸어 내려가 보기도 했어요. 해가 뜨는 것을 보려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그랜드캐년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인 데쓰벨리에도 갔어요. 데쓰벨리는 134도로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기록되었어요. 거기서 너무 더워서 오래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아리조나주 세도나에서 핑크 지프 투어를 했어요. 핑크 지프 투어는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파른 사막 바위산을 올라가는 것인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여행은 짧은 시가이었지만 집에 있을 때 주위를 산만하게 하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가족은 여행 내내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좋은 관계로 돌아 올 수 있었어요. 자연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숨쉬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스베가스로 갔던 여행에서 나는 가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권서은

Lie Wei는 1987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에는 건강했는데, 열살 되던 해, 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못 썼습니다. 병원에서 팔 없는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 예술가처럼 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먹고, 글도 쓰고, 이도 닦았습니다. 또 수영도 연습했습니다. 2002년에는 장애인 국제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두 개 받았고 은메달을 한 개 받았습니다.

열아홉 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홉 시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2010년에 china's got talent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상으로 세계 투어를 하며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발가락으로

일본에 251타를 타이핑하여 기네스북에 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Lie Wei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꿈

박태정

나는 람보르기니 회사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슈퍼차를 디자인하고 싶다.

어렸을 적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를 무척 좋아했다. 그리고 차 그리기를 좋아했다. 친구와 차를 갖고 노는 것이 좋았다.

점점 자라면서 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책을 읽었다. 또 나의 드림차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내 자동차 그림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림 그리는 방법도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나의 실수 이야기

정윤모

우리 식구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어렸을 때는 잘 못 알아듣거나 잘 못 이해해서 실수를 한 적이 많았다.

하루는 엄마가 내게 “윤모야, 상 좀 봐라.” 하셨다. 엄마는 상에 손가락과 젓가락을 놓으라는 뜻이셨다. 하지만 나는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한번은 엄마가 “윤모야, 수건 좀 개줘.” 하셨다. 나는 “수건을 왜 개한테 주지?” 하고 생각했다. 또 별과 달을 잘 구분 못해서 “엄마 하늘에 달이 참 많아요.”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사탕을 먹을 때는 사탕을 깨물어서 먹는 습관이 있어서 내 이가 다칠까 걱정하신 엄마가 사탕을 빨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때도 어떻게 사탕을 빨래쳐

럼 빨아서 먹으라는 건지 궁금했었다. 이럴 때마다 엄마는 너무나 웃으시는 데 나는 좀 창피했다.

이런 많은 실수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세종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한글 책도 많이 읽고 집에서 더 열심히 엄마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심상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브랜든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보다 한 학년이 어려요. 내 친구는 진짜 키가 커요. 내 친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예요. 내 친구는 형과 두 여동생이 있어요.

나와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같은 스쿨 버스를 타요. 그의 취미는 축구와 아이팟 게임이예요. 바이올린을 잘 해요. 나와 브랜든이 친구가 된 것은 2년 전이예요. 우연히 스쿨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친구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요. 특히, 모형 권총들을 좋아해요. 또한 그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개톨릭 교회에 가요. 축구를 네 시간씩 연습해요. 그의 장래 희망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유수민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가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학교에 한국어만 얘기하는 아이가 오면 내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나는 한국의 음식을 많이 좋아해서 어떨 때는 친구에게 줌 주기도 한다. 거의 다 맛이 있다고 해서 한국 음식을 보여주고 무가 있는지 이야기도 해준다.

나는 한국에 갈 때 시장이랑 마트에 가는 게 좋다. 거기에는 신기한 음식도 많고 재미난 것들도 많다, 한국에는 예쁜 곳도 많고 진

짜 신기한 것도 있다. 한글을 알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갈 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한국에 또 가려고 한국어를 잘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 때도 많다. 한글을 배울 때 다른 것도 배워서 좋다. (한자나 한국의 역사 문화 등) 한글을 알고 있어서 학교에도 쓸모가 있을 때가 많다. 영어하고 한국어를 둘 다 알고 있으면 학교가 그것을 보고 학교에 있으라고 얘기 할 수도 있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을 찾고 있을 때 언어를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용할 수도 있다. 나는 그냥 한글과 한국이 특이하고 재미있어서 사랑한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김남효

내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은 비안카예요. 비안카는 작년부터 내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하고 비안카는 둘 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도 많이 그려요. 비안카는 바이올린을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매주 토요일에 연주해요. 비안카는 십 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 했어요. 비안카는 승마도 해요. 네 살 때부터 타고 있었고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나하고 비안카는 같이 영화도 보고, cake pop도 같이 만들고, 쇼핑도 같이 해요. 비안카하고 같이 Van Hoosen Middle 에 다니고 매일 같이 말하고 문자를 많이 보내요. 폴란드와 크로와티아 에서 왔어요. 이년에 한번씩 폴란드와 크로와티아를 갔다와요.

비안카는 항상 필요할 때 있고 나도 비안카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있어요. 비안카는 진짜 좋은 친구이고 항상 비안카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개서

이준오

내 이름은 이준오 입니다. 나는 2001년 5월 27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컴퓨터 게임 좋아요. 그리고 만화 아주 좋아요.

나는 대학교 다 끝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가고 싶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제일 싫어요. 내 할아버지 둘 다 군대에 있었어요.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요. 나는 대학 끝나면 일본 아주 가고 싶어요. 일본 가면 라면 그리고 회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커요. 아빠보다 키가 더 커요. 내 스토리 끝났어요.

나의 여가시간

권서은

제 자유시간에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은 더 똑똑해지게 만들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문법 실력이 늘어 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태블릿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 중에서 게임 하는 것과 유튜브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킹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작년부터 그걸 했습니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올린 켜는 것을 좋아합니다. 7살 때부터 시작했지만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해서 재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연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해요. 저는 학교 오케스트라도 하고 OYO도 합니다.

또 저는 NETPLIX에서 친구랑 영화도 보고 글 쓰는 것도 자유 시간 동안에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공서영

저는 친한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착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정말 착해요. 그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이 도움 필요할 때 꼭 도와주고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를 매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가끔은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해요. 그래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같이 많이 쇼핑하고, 스타벅스에서 사먹을 때 제일 재미있고 행복해요. 영화도 같이 보고, 무엇이든 매일 같이 해요. 제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인사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커서도 계속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싸우지만 그래도 우린 금방 화해해서 좋아요. 저는 그 친구가 있는게 너무 감사해요. 우린 정말 소중한 우정이 있어요.

나의 여가 생활

원준희

여가 시간에 나는 독서, 트위터에 가기, 친구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예요. 나는 책을 보면 오랫동안 읽곤 해요. 독서는 사람을 다른 세계로 이끌고 많은 지식과 영감을 줘서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소셜 미디어 앱 트위터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트위터는 내가 좋아하는 연인과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려주고, 세계와 나를 연결해요. 내가 원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앱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에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서로의 집에 가서 놀아요. 친구들은 정말 재미있고 친절하고 나를

많이 웃게 만들어요. 또,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친구들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줘요. 친구들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는 친구가 없으면 뭘 할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여가 시간은 내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가가 없다면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나는 누구나 인생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정여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의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나는 크리스틴을 7학년 때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이 좋게 잘 놀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정말 착합니다. 크리스틴이랑 잘 어울려서 친하게 지냅니다.

크리스틴과 나는 재미있는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틴의 라커가 나의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7학년 때부터 만나도 잘 놀아요. 크리스틴은 EXO와 G-dragon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슷해서 더 친해졌어요. 크리스틴은 일리노이에서 왔습니다. 2014년 노바이에 왔습니다. 크리스틴이 나의 제일 소중한 친구입니다.



별반

담임 박지영

2014-15 올해는 벌써 다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세계도 이제 세종학교가 익숙해졌다는 이야기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즐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한주간 오늘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때론 엉뚱한 말로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작은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아이들. 미국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같이 와준 아이들에게 격려와 갈채를 보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잘 해보자!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제 꿈은 꿈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일주일 만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간호사에서 과학자로 과학자에서 소설가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후이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꿈을 찾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라도 나는 언젠간 해내고 될 수 있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과학자든 발레리나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나이가 들자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실력이 좋아도 사회가 받아주는 꿈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매년 가슴 아프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년 꿀 수 있는 꿈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제가 꾸 왔던 꿈들에 대해서 계속 배울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실력이 없어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접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꿈을 꿈조차 없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제 꿈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화가가 되고 싶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많아 유명하지 않으면 전 동도 못 벌어 못 먹고 산다고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는 J.K.ROWLING처럼 못쓰면 돈도 못 버니 차라리 일찍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도 접었습니다.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깐요.

저는 이렇게 아프게 많은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히 폐끼치고 살 수 없으니깐 대학에서 뭘 공부할 지 어떤 직업을 찾을 지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몇 년을 빈 껍데기로 살아왔습니다. 별 이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흑백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에서도 저는 조금이라도 색을 찾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색을 찾았습니다. 저는 세계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험으로 만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겪으면 언젠간 꿈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꿈은 꿈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국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 그 이유는 한국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은 아주 독특하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숯불 돼지갈비와 분식음식 그리고 한국의 특이한 음식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면 한국을 가고 싶다. 한국에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먹던 숯불 돼지갈비가 있다. 외할머니댁 근처에 있는 숯불 돼지 갈비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갔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기억해서 반겨주셨다. 돼지갈비는 양념이 잘 베여서 아주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다. 돼지갈비도 맛있지만 같이 나오는 양념계장과 다른 반찬들도 맛이 좋았다. 돼지갈비를 먹고 난 후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먹으면 입안이 개운하다.

나는 숯불 돼지 갈비도 좋아하지만 분식도 즐겨 먹는다. 한국에서 다녔던 학원 건물 일층에 "아딸"이라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의 매일 먹었다. 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에 김밥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서 갈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행복하게 고민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팔빙수를 먹을 때 "캔모아"에서 파는 눈꽃빙수가 맛있다. 빙수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때 입안이 시원해서 좋다.

나는 어른 입맛이라서 특이한 음식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았다. 3년 전 한국에 갔을 때 외삼촌께서 한우마을이라는 곳에 육회를 사줘 먹어 보았다. 꽃등심도 맛있었지만 육회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산낙지와 닭발을 처음으로 먹어 보았다. 산낙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신기하고 이상했지만 먹어보니 입안에 짹짹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맛있었다. 닭발은 좀 징그러웠지만 발의 쫄깃하고 매콤한 맛에 중독성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먹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또 어떤 음식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 미국에서 먹기 힘든 맛있고 한국의 특이한 음식 때문에 자주 가게 된다. 나는 내년 여름에 한국에 가면 그 동안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아직까지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한국여행

고운상 김혜진

이번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어요. 3주 동안 저 혼자서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이모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첫만남이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할머니랑 많이 친해지고 좋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 오시고 처음 보는데도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따뜻한 밥을 저를 위해 새로 만들어 주시고 매 식사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돈을 아끼시는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걸 아시고 냉장고에 늘 잔뜩 사다 넣어 놓으셨어요. 절 보면 항상 웃으시는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느꼈어요.

3주동안 이곳 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명동, 인사동, 홍대, 남산, 포천, 가로수길, 진안, 세종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가 봤어요. 한국은 미시간보다 더 작지만 정말 재미나고 구경할 곳이 참 많아요. 저는 명동과 에버랜드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 명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한국에는 정말 싸고 예쁜 옷도 많아서 모든 옷을 사고 싶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먹을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꼭 다음에 명동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에버랜드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2-3시간 밖에 못 있었지만 저는 놀이동산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이랑 같이 갔었던 여행이었지만, 저 혼자서 많은 놀이기구들을 탔어요. 다음 한국에 올 때에는 에버랜드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명동에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보게 된 이유가 재외동포 청소년 캠프를 참가하게 되어서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청소년 캠프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한국 동포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이판, 호주, 홍콩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가 다 한국사람들이라는 것이 신기했어요. 캠프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도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많은 스케줄에 피곤도 했지만 참 기억

에 남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짧지만 삼주간의 한국여행은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2014 한국여행은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하얀 거짓말

아름다운상 권혁호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얀 거짓말의 가장 흔한 예로는 칭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친구를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아주 똑똑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가까이 친해지면 괜찮은 것일까? 내 대답은 아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게 진심일까? 만약에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친구들과 거짓말 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친구들과 싸움을 고치려고 하얀 거짓말이라도 괜찮은 걸까? 그럼 그 친구와의 거리가 좁아질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솔직한 것이 거짓말 덕분에 완벽해진 관계보다 더 건강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에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음식을 해주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

그 친구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그 맛 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뻐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하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아니다.

이것이 내 이유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친구의 마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친구의 꿈을 깨지 않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 음식은 맛 없었고 말한 다면 어떻게 요리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친구를 생각한다면 친구에게 맛 없다고 말하고 이유를 말 할 것이다.

하얀 거짓말은 어찌 보면 그냥 거짓말 보다 더

독할 수 있다. 보통 거짓말은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찾아내면 화나고 싫어하겠지만 그 사람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보다 더 달콤하고 찾기 어렵다. 마약과 비슷한 것이 하얀 거짓말이다.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은 독이랑 비슷한 존재인 거짓말. 아무리 거짓말이란 걸 알고 진심이 아니라고 알아도 그 때가 되면 마약과 똑같이 너무 늦었다. 하얀 거짓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어떤 건지 모르고 거짓말이 어떤 건지 모르는 독한 거짓말이다.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거짓말 없이 진심을 말하는 것이 제일로 좋다. 하지만 이것은 안 좋은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칭찬을 할 때 정말 솔직한 말이고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진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랑은 다르다. 어떤 때는 그냥 말을 안하고 말 할 때만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다 알고 비교할 수 있을 때 거짓말쟁이 아니면 진심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가를 정할 수 있다.

고 싶었어요. 이 미팅에서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이 비디오는 괴롭힘을 받는 아이들의 자살 비디오였어요.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이 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 슬퍼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 질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이유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무척 슬퍼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쁜 걸 당해야 하는지요. 제 꿈은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꿈

이민영

저는 커서 무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꿈은 아직 없어요. 저는 근데 커서 무얼 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저는 도와주는 것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저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게 기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 도움을 갖고 해결 했다는 것이 무척 좋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척 멋있어 보여요. 저도 이런 것을 하면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몇 일 전에 우리 학교에서 큰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팅에서 무척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한 토픽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이것을 멈추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척 슬펐어요. 괴롭힘을 받는 아이들을 도와주

나의 꿈

최지웅

내 꿈은 Petroleum 기사가 되는 것 이에요. 왜냐하면 기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저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같이 가족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와 엄마가 은퇴하면 제가 돈을 쓰면서 지원을 할거예요. 제가 진짜 최고다 남동생을 돌봐 줄 꺼고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저의 아빠가 기사예요. 아빠 일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제 꿈이 나왔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나의 꿈이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치과의사가 좋은데, 대학교가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Petroleum 기사 생각을 해냈어요. Petroleum 기사가 2012년에 \$130,280 벌어요. 돈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진짜 행복해요. 나의 꿈은 Petroleum 기사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면 아빠와 엄마가 저한테 존경을 많이 할거예요.저는 Petroleum 기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여행

홍아리

지난 여름에 나는 한국여행을 갔다. 4년만의 방문이어서 무척 설레었다. 전에는 한국에 가도 서울에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말마다 한국 곳곳을 여행하기로 계획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는 순간부터 나는 느꼈다. 미시간이랑 공기부터 달랐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 3주 동안 있었다. 그 3주 동안 서해, 남해, 그리고 동해를 모두 여행했다. 무창포, 여수, 통영, 남해, 부산, 속초 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한국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시원한 계곡과 푸른 산, 그리고 넓은 바다가 너무나도 멋졌다. 서울이란 큰 도시를 벗어나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다. 우리는 보리암과 낙산사에 갔다. 두 절은 아주 아름다웠다. 산에 위치한 두 절에서 보는 풍경은 말로 못 표현할 만큼 멋있었다. 그리고, 통영이랑 남해 등 조그만 도시들도 들렀다. 아기자기한 도시들은 너무 예뻐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먹은 음식들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통영에서 먹은 멸치 물 회랑, 순천에서 먹은 한정식 등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은 너무 새롭고 맛있었다.

우리 가족은 산과 바다, 도시와 시골,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많을 것을 보고 왔다. 나는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 안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 여행을 통해 알았다. 나는 이 여행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의 꿈

이형근

나의 꿈은 돈 벌어서 빌 게이츠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전 김치를 먹어서 차를 사요. 이렇게 사는 걸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 가족을 사랑해요. 이것은 나의 꿈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달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죽는 날까지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식사 및 수면은 인생의 두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30세의 나이로 아내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들도 갖고 싶어요. 이건 저의 꿈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 꿈을 달성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하지만 내 꿈은 빌 게이

츠처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그래서 그는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꿈

이상일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언어를 많이 배우고 나라를 여행하고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해요. 그건 좀 어려운 건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2014년 여름 방학 동안 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있었는데, 처음 봤던 'Phoenix Wright : Ace Attorney'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빌리고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변호사 Phoenix Wright에 관한 것입니다. Phoenix Wright는 아주 좋은 변호사 입니다. 책을 더 읽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될 거면 좋은 대학교로 가야 해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로 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저의 꿈을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나의 꿈

이태석

나의 꿈은 수영선수와 의사 되는 것이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싶어요. 이 대학교에는 수영과 의사 쪽으로 잘해요. 어렸을 때 부터 수영을 시작했는데, 잘 못했어요.

하지만 8학년때 수영팀을 바꿨어요. 이 팀은 더 어려운 수영팀이에요. 여름에 매일 아침과 저녁 2-3시간 연습을 했어요. 6학년 부터 매년 수영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여름부터 첫 번째로 수영선수가 되

는 기회가 진짜로 있었어요.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대학교에도 수영을 잘 하고 싶어요. 아마 올림픽도 갈까요?

수영만 아니라 의사도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의 과학 쪽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UofM에서도 메디컬 과학을 특별히 공부 할거예요.

나의 꿈은 의사가 된 후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동물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커지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동물이 별로 싫어졌고, 사람 건강 도와 주는 것을 하고 싶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늙어서 수영을 못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날은 의사가 되는 날이에요. 저는 2024 올림픽 게임을 가고 싶은데 이 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취미가 없어요. 축구를 해 봤고, 야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난 싫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에는 수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 꿈이 모두 다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여행

차 승연

다섯 살 때 한국에 갔었다.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이 나는 것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것은 찜질방에서 시원한 팔빙수를 먹은 것이다. 지금도 찜질방에 가면은 팔빙수를 꼭 먹는다. 예전의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난다.

다른 재미있는 기억은 사촌 오빠를 만난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다. 같이 색칠도 하고 카드놀이도 했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같이 아주 재미있게 잘 놀았다.

같이 시장 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맛있는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었었다. 미국하고 다르게 모든 곳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게 나한테 너무 신기했지만 사촌은 익숙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도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줬었다. 언니에게는 예쁜 머리띠를 고르고 동생에게는 장난감을 골랐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해 봤다. 미국하고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가족도 처음으로 만난 사촌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한국에 갔다 온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다. 한국에 또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여행

심지인

나는 지난 겨울방학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다. 예전에도 2년에 한번은, 가족 방문 겸 한국 여행을 가곤 했지만, 이번 한국 여행은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 이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한국에 가면 아빠엄마를 졸라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시내 구경 등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노는 데만 시간을 보내곤 했었던 것 같다.

고등학생이 되서 방문한 이번 한국여행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 연로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시는 일이 많으셨다. 그래서 함께 병원도 같이 다니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았다. 많은 것을 궁금해 하시는 어른들께 불편함이 없는 한국어로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 이야기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니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큰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만으로도 허허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늦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토요일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가지만 너무 편한 한국은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생활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니 엄마,아빠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약간의 긴장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만 있는 여행과는 조금 다른 편안함과 나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주는 한국여행...나에게는 가고 또 가도 너무 좋은 여행이다.

하늘반

담임 이지은

올해 새롭게 하늘반 담임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길고 춥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려는지 매섭던 추위가 한 풀 꺾인 듯 합니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새학기를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함께 한 시간이 일년이 다 되어가네요. 학교생활로, 또 방과 후 활동으로 바쁜 고등학생들이라 하늘반 전체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만나 본 적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수업시간에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참여해 준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함께 한 시간동안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 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를 찾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비결

박성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현입니다. 제가 16년 넘게 살았는데, 지난해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고 나서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학교가 제겐 행복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겐 풍족한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런 풍족함을 느끼고 사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100% 만족을 주는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자유가 없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할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행복만 가지곤 만족해 하지 않겠지요.

부유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행복해 하기 보다는 더 나은 것을 찾고 싶어 할 거예요. 행복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안예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문화를 쉽게 체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화들을 체험할 때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크면서 다양한 음

식들을 먹어봤습니다. “미국음식”은 솔직히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음식을 빌려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경한 레시피는 많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사람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꼭 하루에 한번은 먹는 한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기에 한국에도 음식의 맛과 식감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떡볶이의 떡은 쫄깃쫄깃하고, 대구 매운탕은 얼큰하면서 시원합니다.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음식은 맛이 다양하지 않아 빨리 질리고 느끼해서 많이 먹지는 못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한식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는 한식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한식 중에서 한가지의 음식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머니의 손맛이 좋습니다. 누구나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라고 우깁니다. 과학적인 이유를 보면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니까 제일 익숙한 맛이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식집을 가도 어머니의 음식보다 못하는 것은 익숙함 그 이상입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떡볶이 떡이 제일 쫄깃하고 우리 어머니의 매운탕이 제일 얼큰합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깔납니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장채원

저는 미국에서 살아도 한국을 사랑해요. 저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한국을 가면 할 것도 아주 많아요.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을 방문하면 저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사촌들, 삼촌, 다 너무 보고 싶어요. 가족이랑 만날 때 음식을 먹으러 맛있는 식당도 가지요. 저는 갈비, 회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에서의 쇼핑도 엄청 좋아요. 엄마와 할머니랑 쇼핑을 갈 때 재밌

고, 옷과 음식을 많이 사요. 특히 저는 지하철 타는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미시간에서는 매일 차만 타서 지하철이 너무 좋아요. 한국에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 즐거워요. 한국에 방문하면 저는 제주도 가는 것이 신나요. 제 생각에는 제주도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집에선 가족끼리 한국어를 사용해요. 우리 부모님께선 저와 제 동생이 계속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쓰기를 바라시지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면, 미국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영어와 한국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홍예은

나의 행복은 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서 행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이벤트나 큰 물건들로만 행복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도 있죠. 저는 작은 것들로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저는 일단 누가 안 괴롭히면 혼자서 잘 놀고 행복해요. 물론 다른 것들로도 행복을 받죠. 날씨가 추워도 좋고 눈이 와도 좋아요. 특히 눈이 펄펄 와서 학교 못 갈 때가 최고로 행복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을 많이 자도 만족스럽고 쇼핑을 하던 친구들과 놀 때도 행복합니다. 또 저는 아주 별거 아닌 것들로도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모자 털이나 인형을 만질 때 아니면 귀엽고 작은 동물들 볼 때.

보다시피 저는 작은 것들로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못 이해해도 저는 제가 행복하면 괜찮아요. 제 행복은 제꺼니까요.

행복

최원옥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행복의 눈 높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

최지우

행복은 딱 정확한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사람들마다 행복을 얻는 방법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라온 환경과 교육이 스스로의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만약 어렸을 때 물질적인 행복만을 배웠다면, 그 사람에게겐 자신의 부의 척도만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요. 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면 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친구들과 있을 때예요. 함께 음악회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함께 수다만 늘어 놓아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새로운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지만,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때가 너무 행복해요.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 이에요. 아무것도 행복을 느끼는 것 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와 성형의 필요성

안나현

요즘 대한민국에 유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입니다.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와 욕설도 받았습시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자신을 가꾸고 더 나은 외모를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까지 생겼습시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신을 가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다이어트입니다. 운동을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식단조절과 효과 있다는 다이어트는 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입니다. 한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액킨즈 다이어트, 차를 마시는 차 다이어트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들이 당뇨와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면 어떨까요? 또한 옛날과 다르게 거식증이라는 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식증은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으면 다 다시 토해내는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병중의 하나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이런 병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받는 것 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의

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지 다이어트의 원인이 타인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긴 하니까요.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 입니다.

요즘 한국을 세계에 많이 알린 것은 성형입니다. IT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했던 한국은 점점 성형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할 정도로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투표에서는 못생긴 사람보다 성형으로 잘 생겨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또한 취업 9종세트에 학점, 영어점수와 함께 성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성형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저는 성형수술이 다이어트보다 더 위험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은 다이어트와 달리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랫뷰티처럼 성형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생겼지만 저는 외모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지는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성형을 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예뻐지면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것 같아서 성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자신의 성형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실화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외모로 타인을 속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이어트와 성형, 이 둘 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꾸어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과연 외모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바뀐 것일까요? 겉모습만이, 껍데기만이 바뀐 것이겠지요. 저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더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다이어트와 성형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

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필요한 것인가

함성민

요즘 전세계에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이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연예인들처럼 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 할 때는 좋은 점 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의 좋은 점은 인기, 외모, 그리고 성격입니다. 나쁜 점은 스트레스, 성격의 변화, 그리고 삶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몸매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더 나은 몸매를 위해서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 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 아니면 여자가 상대방을 봤을 때, 남자는 여자가 아름답고 날씬하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여자도 남자의 외모에 따라 호감도가 달라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성격도 좋아집니다. 멋진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로 인해 생기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자신을 연예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더 뚱뚱하고 못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더 심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 섭취를 줄여서 더욱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더 나은 몸매를 위해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을 듣게 되면 뼈를 손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걷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은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 회복 시키는 수술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멋지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형수술을 합니다. 좋은 점은 다이어트의 효과와 같으나, 나쁜 점은 다릅니다. 성형수술은 무조건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아름다운 외

모를 뺐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커지거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여 그 전의 모습보다 못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삶의 위험이 따릅니다. 성형수술의 실패로 인해 삶을 비관하고 자살의 충동까지 이릅니다.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면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이 성공적이라면 더욱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수가 있다면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은 삶에 필요하기도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정재은

맛있는 한국음식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 음식을 고를 수가 없어요. 떡볶이, 양념치킨, 냉면, 파전, 등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음식은 두 가지예요. “갈비와 돈까스.” 돈까스는 한국식당에 갈 때마다 주문하고 싶은 음식이에요. 바삭바삭한 튀김 옷의 돼지고기를 상상하면 고민이 되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돈까스를 먹을까? 만약 얼마 전에 돈까스를 시켜 먹었다면 다른 음식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까스를 시키게 되요. 돈까스를 시키면 나오는 샐러드부터 돈까스를 찍어먹는 소스까지 너무 맛있어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돈까스를 밥이랑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해서 식구들 중 한 명의 밥을 뺏아 먹던지, 한 공기를 시키던지 등 중 하나를 해요. 하지만 저는 식당 돈까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긴 하루가 지나고 돈까스 향기가 집안에 풍기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대하게 되요.엄마가 만드는 돈까스는 정말 맛있거든요. 엄마의 돈까스는 식당 돈까스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고기의 두께, 빵가루와 밀간을 다르게 해서 그런 것 이겠지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예요. 양념갈비와 생 갈비를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해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파절이를 위에 올려서 씹

을 싸서 먹으면 최고예요. 저는 갈비는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최근에 친한 언니와 함께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금방 익은 갈비를 먹을 때 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갈비가 익는 소리와 향기는 저에겐 선물인 것 같아요. 유명한 갈비 집이 아니더라도, 저는 좋아요. 갈비는 갈비니까요. 어디서나 먹어도 맛이 있는 음식이 갈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먹고 싶을 때 마다 먹을 수는 없어요. 갈비는 비싸서 가끔씩만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먹을 때 마다 더 맛있게 먹게 되요.

미국에서도 한식이 맛있는데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한국은 거의 모든 음식이 늦은 시간까지 배달되며,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을 가게 되면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맛집을 찾아 다니면서 좋아하는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꼭 먹고 싶은 음식을 적어 놓고 있어요.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한식을 볼 때 마다 걸어서라도 한국에 가고 싶어져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해 보고 싶고, 많은 음식을 먹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대학 가서는 한국음식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한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한식은 매일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한식은 최고예요.



숯불갈비: 최고의 음식

김동욱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서 딱 하나를 정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하나를 뽑는다면, 숯불갈비로 정해야 할 것 같다. 소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숯불갈비는 최고인 것 같다. 환상적인 양념갈비를 강력한 숯불 위에다 구우면 진

짜 행복하다. 딱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녹는다. 적당한 양념에 숯불 맛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맛이 난다. 짬이랑도 어울리고, 국수랑도 어울리고, 된장 찌게도 어울린다. 무엇이든지 갈비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 최고가 되는 것 같다.

나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서 미국 문화를 많이 체험하며 살고 있다. 나의 학교 친구들은 저녁에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등등을 먹는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미국음식을 먹고, 집에서는 한국음식을 먹는다. 미국음식도 맛이 있지만 한국음식을 사랑한다. 그 중에 숯불갈비를 제일 좋아하고, 나의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음식을 소개할 기회가 되면 숯불갈비를 소개한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릴링’도 하기도 하지만 햄버거를 굽는 것과는 또 완전 다르다. 새로우면서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공유가 되어 숯불갈비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갈비는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것 같다.

슬프게도 미시간에는 진짜 잘하는 숯불갈비 식당이 없다. 숯불갈비의 그 참 맛을 못 살려주는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진정한 갈비를 먹기위 해서 시카고까지 간다. 다섯 시간이나 걸리면서 볼 것도 없는 시카고를 갈비 때문에 간다. 진짜 맛있는 KOREAN BBQ 라는 데가 있다. 그곳은 그 동안 먹었던 식당 중에 최고인 것 같다. 앉자마자 양념 숯불갈비를 시키는데 나 혼자 3인분정도를 먹어서 7-8인분을 시킨다. 고기가 나오면 갑자기 행복해진다.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춤도 살짝 추기도 한다. 불 위의 고기 익는 소리가 들리고 그 향이 코에 번진다. 우리 아빠가 구우시면 나는 젓가락을 딱 들고 준비를 하고, 다 익은 고기를 소스에 살짝 찍어 입안에 넣으면 기절을 한다. 장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맛이 있다. 배부르도록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한다. 1박 2일을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이지만 숯불갈비라면 언제나 대 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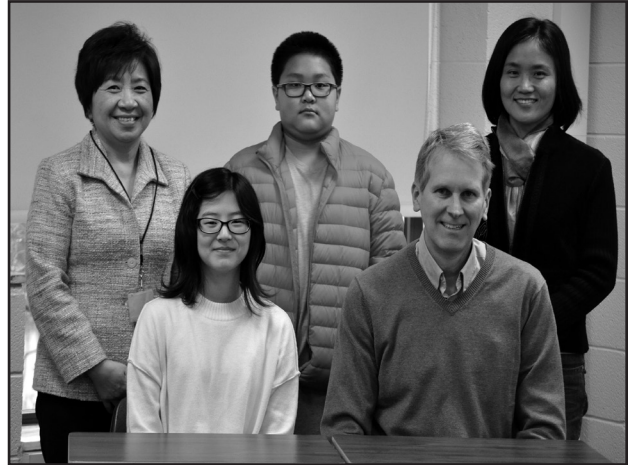
숯불갈비는 최고의 음식이다. 맛도 맛있지만, 다른 문화에게 소개해서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음식이다. 나에게는 가족이 생각 나고, 좋은 추억이 되는 음식이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숯불갈비이다.

신입생/색동/종달새반

신입생반 담임 엄선규

세종 문집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니 벌써 이번 2014-2015학년 수업이 끝나가는가 봅니다. 올해는 저희 반의 학생수가 아주 적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카이, 발이 불편한데도 East Lansing에서 부터 운전하고 오는 자미라, 엉뚱하고 푹푹한 하람이, 배우고 습득하는데 열정이 많은 마이크... 저희 반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은 학기에도 열심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앞날에 발전과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틈틈히 저희 반 수업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신 현진씨, 고마워요.



색동반 담임 박현우

색동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토요일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일분일초가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보고, 더 읽고, 더 쓰고 싶어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올해 처음으로 색동반을 맡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가민(켈리), 예쁜 눈웃음으로 교실 분위기를 즐겁게 만든 예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도와주던 클로이까지..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한글 공부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한 해를 보낸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매해 겨울마다 집 앞에 예쁘게 필 목련 꽃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이번 겨울은 정말 매섭게도 추웠지만 목련 꽃보다는 예쁜 색동반 친구들을 기다리며 지낼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적어 보세요.

자밀라 (신입생반)

나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6시10분에 샤워합니다. 그리고 6시40분에 옷을 입고, 6시45분에 기도합니다. 7시에 아침을 먹고, 7시30분에 운전합니다. 8시에 학교에 갑니다.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보통 5시에 집에 갑니다. 보통 9시에 잡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적어 보세요.

정하람 (신입생반)

나는 일곱 시에 일어나요. 일곱 시 십 분에 세수를 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어요. 여덟 시에 학교에 가요. 세시에 집에 와요.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습을 해요. 저녁 여섯 시에 저녁을 먹어요. 책을 읽다가 아홉 시에 잠을 자요.

좋아하는 동물을 설명해 보세요.

정하람 (신입생반)

북극곰에 대해서
나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진짜 커요.
나는 이빨이 커요.
저는 진짜 추운데서 살아요.
나는 물고기를 먹어요.
나는 조금 똑똑해요.

우리 처음 KPOP 콘서트

심카일 (중달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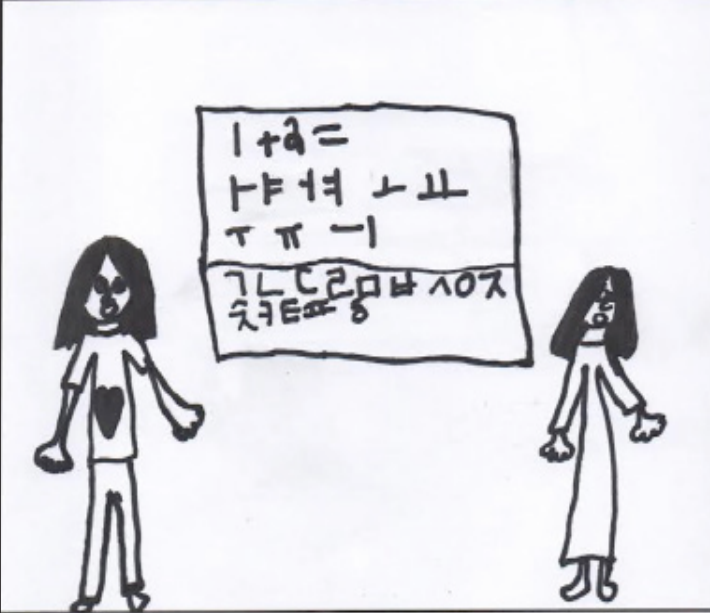
토란토 Unite the Mic 콘서트에 우리 딸 데리고 갔어요. 이 콘서트에서 산이하고 엘리하고 박재범이 노래 했어요. 공연은 산이가 시작했어요. 나는 두 노래만 알지만, 산이가 아주 재미있는 공연을 했어요. 산이가 무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연을 했는데, 같이 공연을 한 사람은 최고의 Beat Box 공연자 같아 보였어요.

다음에 엘리가 나왔어요. 엘리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처음부터 생방송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는 엘리가 진짜 노래 하는 것을 깨닫았어요. 대박!

마지막으로 박재범이 무대에 나왔어요. 박재범은 내가 좋아하는 R&B 노래를 시작했어요. 다음에 RAP 했어요. 박재범은 춤을 잘출 수 있고, 노래 잘 했고, RAP 할 수 있어요. 박재범은 진짜 활력있는 공연자예요.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아서 이 콘서트는 특별했어요. 콘서트 전 월요일에 표를 받지 못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대답으로 그쪽에서 잘 못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주라고 말했어요. 콘서트때 좌석 안내인은 무대에 가까운 쪽으로 좌석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발코니에서 메인 무대 앞줄에 앉아 공연자들도 만났어요. 우리 딸은 아주 아주 행복해요. 진희는 엘리를 만났어요.



나는 귀서 비록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귀서 선생님 이
되고 싶어요. 나는
동생들한테 가르쳐요



조금씩 인생의 글

안예람

3살인 저를 교사인 어머니께서 수업 자료 가방과 다름없이 한국학교로 끌고간 기억이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학교를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교를 다닌지 어느새 4년이 되었습니다. 어떨때는 억지로 실려갈때도 있었던 한국학교지만 제 인생에 한국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주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것은 기본이며 그외 한국 역사와 문화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학교를 고등학교와 동시에 입학한 저는 그전에 용기 내어 시도 하지 못한 것들을 해볼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교회와 한국학교는 항상 한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미시간으로 이사온 저는 한국학교를 처음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반을 처음 들어갔을 때 언니 오빠들로 꽉차있는 방이 낯설기만 했고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수업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어색함을 없애려고 노력하셨고 난타수업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교에 한류클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가요를 즐겨 들었고 저의 숨겨진 취미가 집에서 막춤을 추는 것이었지만 진짜로 춤을 배우고 공연할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낮을 많이 가리는 저는 어느새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은근히 매주 세종학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대공포증이 조금 있는 저는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출수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엔 수줍고 소심하게 추었지만). 그리고 춤 뿐만아니라 무대위에 올라가 시도 해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적극 추천과 격려를 통해서 저는 수많은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대회와 나의꿈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한국 이세로서 정체를 깨닫게 되었고 저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얻었습니다. U. of M 한국역사 퀴즈볼을 나갈 준비하면서 한국의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지 알게 되었고 한국인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한국인들의 생각과 이념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포럼을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한계들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졸업생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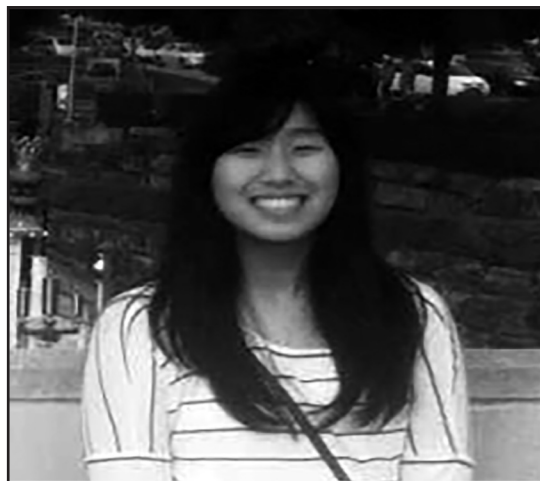
정재은

저는 유치부부터 지금까지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University of Michigan Korean Quiz Bowl 를 준비할 때 학교에 한 시간씩 일찍 가서 대회를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이 몰랐던 한국의 문화와 깊은 역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Dokdo Forum Essay 를 다른 친구들과 준비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세종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끔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다니는 동안 느꼈던 보람이 더 컸습니다.

세종학교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많은 클럽을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했지만, 세종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또 더 커서 만나도 좋은 친구로 지낼수 있을것 같아요.

세종학교에서 클럽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클럽 회장을 하면서 많은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알수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과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K-Rise 이라는 클럽에 참가 하면서 자신감과 춤 실력이 늘었습니다.

세종학교이란 곳에선 한국어만 배우지 않고 한국의 뜻깊은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직접 느낄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학교를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세종학교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기뻐요.



자원봉사 학생의 글

이원석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갑자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일까요. 침대에 누워 흰색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이 짧은 가사를 곱씹어봅니다. 짧은 가사에 이끌려 저는 어제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세종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이전에 학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시절 미시간으로 이사를 왔던 저는 지금과 똑같이,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세종학교로 등교했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은 오늘의 저와 별다를 바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수업시간엔 궁금한 질문은 참지 못하고 꼭 여쭙보고…… 물론 그때보단 조금 더 자제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4학년때 한국으로 다시 이사를 갈 때 저에게 세종학교는 한국어란 큰 선물을 주신 곳이었습니다. 세종학교가 있었기에 한국어가 유지됐었고, 저에게 언어의 장벽은 그리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세종학교에서 받은 경험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꼬마로 한국을 떠났던 저는 조금 더 커서 다시 미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종학교에서 색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할을 바꿔 제가 학생들을 돕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9학년부터 저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도 대하기 어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저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절처럼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도 직접 보고, 한국어 실력이 느는 것 또한 직접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세종학교에서 봉사 오고 싶다는 후배가 있으면 웬만해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벌거나 스펙을 쌓고자 오는 친구들에겐 너무 힘드니깐요. 실제로 제가 자원봉사자로 세종학교에 나오는 동안 너무 힘들다고 그만둔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은 배가 되었죠. 아이들이 단어 하나라도 더 배우고, “teacher” 대신에 “선생님” 이라고 하는 모습만큼 뿌듯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도 끝인 것 같네요.

짧은 4년이었습니다. 꼭 제가 학생이었던 때 어제 같은데 말이죠. 세종학교에서 만든 수많은 추억들과 쌓은 다양한 경험들은 저에겐 주옥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대학교를 가셔도, 직장을 가셔도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만난 학생들, 특히 캠프에서 한 팀이 됐던 학생들, 작년 가을부터 같이 한 토끼반, 그리고 그전에 맡았던 색동반 학생들 전부 제 마음엔 특별한 구석에 있을 겁니다. 시간은 늘 그랬듯 재빨리 흘러갈 겁니다. 유행은 계속 바뀌고 제 모습도 바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처럼 세종학교를 선명히 기억할거예요.

이야기 대회 및 골든벨

이야기 대회

대상: 이지민 (장미)

유치부

1등: 윤지환 (매화)

2등: 노현솔 (매화)

3등: 이상엽 (매화), 김초연 (개나리)

노력상: 정세이 (토끼), 김건희 (나비), 이예진 (개나리), 박제인 (매화), 한준혁 (매화)

초등부

1등: 정윤아 (난초)

2등: 이소정 (무궁화)

3등: 정민아 (난초), 박준수 (장미)

노력상: 김세희 (난초), 한수혁 (무궁화)

중고등부

1등: 유수하 (별)

2등: 이연우 (해)

골든벨

3학년: 배은서

6학년: 이연우, 이소현

4학년: 김다연

중등부: 문수진

5학년: 정해찬

고등부: 유수하



동요부르기 대회

동요부르기 대회

대상: 이승준 (난초)

1등: 정진아 (나비)

2등: 김초연 (개나리)

3등: 윤수은 (개나리), 곽이안 (나비)

장려상: 김건희 (나비), 이예진 (개나리)

노력상: 심이안 (개나리), 김도희 (개나리), 이종민 (개나리)

참가상: 조병헌, 김민서, 김성민, 김서경, 정리키, 조민현, 정세이 (토끼반)
김선규 (매화)



글짓기 대회

글짓기 대회

대상: 유수하 (별)

4학년 무궁화반

무궁화상: 유진
아름다운상: 김다영
고운상: 한수혁
예쁜상: 김주하

5학년 장미반

장미상: 정해찬
아름다운상: 이지민
고운상: 김남혁
예쁜상: 배세은

6학년 해반

해상: 이연우
아름다운상: 이소현
고운상: 이상원
예쁜상: 이준근

7학년 솔반

솔상: 문수진
아름다운상: 김민주
고운상: 임재영
예쁜상: 이진현

8학년 달반

달상: 공서영
아름다운상: 김래아
고운상: 정여진
예쁜상: 유수민

9-10학년 별반

별상: 최하영
아름다운상: 김혜진
고운상: 권혁호
예쁜상: 이민영

10-12학년 하늘반

하늘상: 함성민
아름다운상: 안나현
고운상: 안예람
예쁜상: 정재은

시카고 한국교육원 주최 한글날 기념 에세이대회

중고등부 은상: 김래아
중고등부 동상: 정윤모, 권혁호, 최하영



특별활동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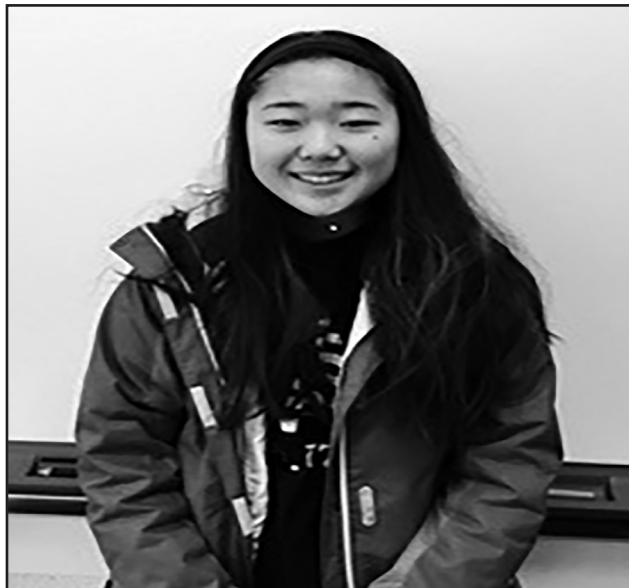


친구클럽

회장 진소민

저희 세종학교 친구클럽은 입양아와 도움이 필요한 세종학교 학생들을 위한 클럽입니다. 매주 금요일 마다 Bloomfield Hills Public Library에서 선생님들이 따로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친구클럽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8학년부터 12학년 세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클럽의 목표는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친근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세종학교 숙제, 다른 교과서와 책들을 이용해 학생들이 한글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구클럽은 한글 공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저는 이 클럽에 4년 동안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배울지 생각하며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향상된 실력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 집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혼자 힘으로 끝내는 거나 책을 혼자 읽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세종학교 친구클럽 회장으로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도와주며 활기 차게 가르치겠습니다.



역사문화캠프





2015 - 2016 학년도 등록안내

세종학교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주류사회에서 자랑스런 한국계미국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세종학교에서의 하루가 필요한 절실한 이유입니다. 세종학교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운 한국계-미국인으로 자라 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43년의 전통을 통해 장년으로 성장한 세종학교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보세요.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 현명한 선택! 세종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장: 김선미 이사장: 김창휘

개학일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수업시간: 토요일 10:00AM - 1:30PM

수업과목: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 음악, 무용, 태권도, 한국요리, 사물놀이, 공예

수업기간: 1 학기 - 2015년 9월 12일 ~ 2016년 1월까지

2 학기 - 2016년 2월 ~ 2016년 6월까지

수업장소: Detroit Country Day Middle School

22305 West Thirteen Mile Road Beverly Hills, MI 48025

대상 학생: 유치부 (4 살),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반, 입양아반, 신입반, 다문화반

등록금: 한 학기당 - \$185, 간식비 1인당 - \$25, 교재비 - \$15 **총합계 - \$225**

수표는 Sae Jong Society of Detroit 로 써 주세요.

접수처: Sae Jong Society of Detroit, P.O. Box 250632, Franklin, MI 48025

등록마감: 2015년 8월 31일

연락처: 교장 김선미: 248-562-7741 엄선규: 248-756-0568

Class Hours: Saturdays, 10:00 AM to 1:30 PM, except holidays

Ages: 4 Years Old to Adult

Subjects: Korean, Korean History, Culture, Music, Traditional Dance, Tae Kwon Do, Cooking, Korean Instrumental Music

Location: Detroit Country Day Middle School

22305 West Thirteen Mile Rd. Beverly Hills, MI 48025

School Year: 1st Semester - September 12, 2015 ~ January 2016

2nd Semester - February 2016 ~ June 2016

Tuition: Per Semester - \$185 + \$25/Snacks + \$15/Materials

\$225 Total

Payable to Sae Jong Society of Detroit

Register by August 31, 2015

Send to: Sae Jong Society of Detroit, P.O. Box 250632, Franklin, MI 48025

Contact: Sunmi Kim (248-562-7741) Sungyu Um (248-756-0568)

Visit us online at www.misaejongschool.org

웹사이트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Sae Jong Society of Detroit

P.O.Box 250632, Franklin, MI 48025-0632

TEL 248.562-7741, 248.756-0568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Sae Jong Society of Detroit